MAY 27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834 1982년 5월27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hursday, May 27,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김 영 규
편 집 인: 이 석 현
인 쇄 인: 박 정 서
광고부장: 송 광 호

장학재단

장학생 5명 선발
1천달러씩 지급

82~83년도 캐나다 한인장학재단(이사장 구상회)의 장학생으로 김원사, 최승자, 배우선, 김재걸, 이남등 5명이 뽑혀 각 천불씩의 장학금을 받았다.

이들중 최승자씨는 지금까지 3번, 배우선씨는 2번 장학생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차지했다.

장학재단은 또한 황준호(웨스턴 YMCA한글학교)군등 캐나다 전국한글학교에서 선발된 우수학생 16명에 장려상으로 상패와 부상을 주었다.

22일 하오 2시15분 한인회관에서 거행된 시상식에 부인과 3개월된 아기를 데리고 참석한 김원사(30)씨는 "장학금을 받게 되어 기쁘다.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모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오타와 한인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자로 봉사하고 있는 김씨는 칼톤대 지질학 연구원으로 박사과정을 밟고있는 유학생이다.

하오2시15분 문인식이사의 사회로 열린 수상식에는 구상회 이사장의 인사말, 홍순관목사의 축시(영어)가 있었다.

구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보다 이민역사가 훨씬 긴 인도인들도 못하는 장학사업을 10년 이민역사밖에 안된 한인들이 하고 있다는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모국의 학생들에게도 장학사업을 확대, 올해는 수명의 중·고생과 맹인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순관 목사는 격려사에서 "수상자는 앞으로 우리 사회를 보다 낫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 머리는 좋으나 그 두뇌를 사회파괴를 위해 쓰는 「교육받은 천치」(educated idiot)가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79년과 80년 토론토대 대학원 재학시 두차례 장학생으로 선발됐으며 현재 예일대에서 언어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최승자씨와 이스턴·펜티코스탈·바이블·컬리지에서 목회학을 전공하고 있는 이남씨, 한국을 방문중인 배우선씨는 이날 수상식에 참석못했다.

장학생 선발위원장인 이영일씨는 올해는 8명이 장학생선발에 응모했으며 선발된 5명은 모두 A학점이상의 우수한 학생들이라고 밝혔다.

78년도에 설립된 한인장학재단은 79년도에 6명, 80년도에 4명, 81년도에 4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며 41명의 이사진·장학기금 4만불을 확보하고 있다.

◆22일 한인장학생재단의 장학금및 장려상 수여식이 끝난후 수상자들과 이사진들이 함께 기념촬영 했다.

영예의 한인장학생 프로필

◆최승자(31)

학력: 연세대학졸업(73년), 연세대대학원 석사(75년), 토론토대학 대학원 석사(81년), 현재 예일대 박사과정중(언어학)
상: 한인장학재단 장학생(79년 80년), U of T 장학생(80년), 예일대 장학생(81년)
수상사유: 지적이고 진지한 우수한 학생

◆김원사(30)

78년 캐나다 유학.
학력: 서울대 문리대 졸업, 오타와 칼톤대 대학원(지질학)졸 석사(80년), 현재 칼톤대 지질학과 박사과정중(80년부터)
경력: 서울대 문리대 지질학과 조수(78년), 칼톤대 지질학과 조수 및 연구원(78년~82년)
상: 8학년 장학생, Guloil 장학생, 칼톤대 장학생, 한국 문교부장학생(논문상), 학장상(우수학생)
수상사유: 장래가 촉망되는 우수한 학생.

◆배우선(20)

68년 캐나다 이민.
학력: 딕슨 그로브 중학교 졸(76년), 키플링고교 졸(81년), 현재 토론토대학(Art & Science) 재학중.
상: 8학년 사회과학우수상, 9~12학년 우수상, 13학년 우수상(지리학), 전교 2등으로 13학년 졸.
과외활동: 농구, 배구, 테니스, 배드민턴, 필드하키, 한인교향악단(1st Violinist) 병원자원봉사.
수상사유: 장래가 촉망되는 100% 노력형.

◆김재걸(19)
학력: 알버트·캠벨고교 졸(82년) M.I.T.입학통지서 받음.(Biomedical Engineerig)
상: 수학경시대회 1등, 칼레지 생물학 콘테스트 2등,
과외활동: 교회학생회 회장, 배드민턴, 탁구, 체스.
수상사유: 협조적이며 지도력이 탁월한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

◆이 남(20)
현재 이스턴·펜티 코스탈·바이블·칼레지에 재학중이며 목회자 희망.

◆장려상 수상자
박동숙(메니토바한글학교)
전혜련(미시사가한글학교)
김영희(씨알한글학교)
이충섭(샛별한글학교)
진용수(오샤와 세종한글학교)
이정희(욕 한글학교)
박신서(쇼템한글학교)
권 철(칼가리 한인학교)
송희주(에드몬톤 한국어학교)
이상규(런던 한인한글학교)
이미형(오타와한글학교)
황준호(웨스턴 YMCA어린이학교)
정희경(토론토 YMCA한글학교)
한정빈(노스욕한글학교)
천종욱(Peel Korean Academy)
김남희(한맘한글학교)

◆김재걸

교민골프 신기록 69점
박영철, 제1회 체육회 골프에서

82년 교민 골프시즌 개막 1주만에 신기록이 기록됐다. 프로선수들도 어려운 69점은 아마추어선수들 중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신기록이다.

지난 22일 스트릿스빌·글렌골프장에서 열린 제1회재 캐나다체육회장배 골프대회에서 박영철 부총영사(주 토론토총영사관 근무)는 14년 골프경력중 최초로 3언더파(Par=72점) 69점을 기록, 이날의 히어로가 됐다.

약40명이 참가한 이 대회에서 정길수씨(해밀톤서 음식점경영)는 77점으로 2위, 신인 장인수씨는 80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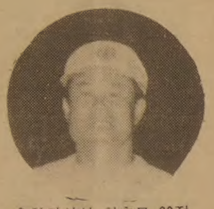
미시사가 근교 글렌골프장의 날씨는 바람이 불고 비가 와 골프조건이 나빴다.

박부총영사는 작년도 한인사회 골프를 총마무리하는 수퍼10 대회서도 1등을 차지했었다.

이제까지 한인사회의 기록은 오석원군의 70점이었다.

"정신적으로 자신감이 있었고 콘디션도 좋았다. 쉬지 않고 노력한 대가인 것 같다"고 부총영사는 말했다.

68년부터 골프를 시작한 박부총영사는 지난 겨울 골프비디오를 빌려 봤으며, 책도 보면서 실내골프장이나 집에서 꾸준히 연습했다. 최근에는 프로·골퍼를 찾아가 1시간 레슨을 받기까지 했다.


◆한인사상 최초로 69점 성적을 낸 박영철부총영사.

박부총영사는 "윤여경, 김경철, 정용주씨등 잘 아는 분들과 팀이 되어 정신적 부담이 적었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종전의 김택수 대한체육회장배를 캐나다체육회장(이병권)배로 이름을 바꾸어 제1회가 됐다.

◆그로스
1위: 박영철 69
2위: 정길수 77
3위: 장인수 80
◆그로스 A조(90점대 이하)
1위: 정용주
2위: 이창복
3위: 김형도
◆넷 A조
1위: 최호영 82-73
2위: 강태영 83-74
3위: 박종선 84-74
◆넷 A조
1위: 조영철
2위: 최상철
3위: 김기수
◆니어리스: 백권수
◆롱게스트: 심재환(280 Yd)
◆감투상: 최동주
◆베스트·골퍼: 박광철

한국건설업체들 북미시장 개척중

(서울22일=연합)한국의 건설업체들은 중동의 건축붐이 사그라들자 미국·캐나다등 북미시장을 개척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미국·캐나다 현지의 대기업들과 주택및 도로건설, 공공시설 설치등을 합작키로 추진중에 있다.

중남미에서 이미 석유개발에 재미를 본 대우개발은 북미에서 석유개발 건설에 손댈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밖에 대림산업등 여러기업들이 장기적 안목의 해외시장개척을 강화하고 있다.

모국 학생에 장학금
장학이사장에 강공선씨

한인장학재단(이사장 구상회)은 지난 22일 장학금 수여식에 이어 정기총회를 열고, 아래와 같이 임원을 개선했다.

이사장: 강공선
차기이사장: 문인식
총무: 이상남
재무: 김병권
서기: 이동일

41명의 이사로 구성된 장학재단은 현재 기금 4만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신임 강이사장에 의하면 일반의 여론에 따라 올해부터는 모국의 불우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별도로 설정, 제1차로 7명의 장학생을 뽑기로 했다.

모금사업으로는 해마다 「장학의 밤」을 전체 교민사회의 행사로 2월하순 거행하고, 앞으로 골프대회·연말파티등은 대내행사로 멤버들만의 친선사업으로 축소키로 결정했다.

낚시대회 푸짐한 수확
파이크 89cm, 5kg짜리 낚아

122명의 낚시군들이 참가, 교포낚시대회사상 최대의 참가자 기록을 낸 제2회 한인친선낚시대회에서 길이 35인치, 무게 11파운드짜리 자이언트 「파이크」가 잡혔다.

지난 24일 구엘프 북방 벨우즈(Bellwoods) 팍에서 토론토 한인낚시협회 주최, 본사등의 후원으로 열린 대회에는 적당한 습도등 낚시 최적의 날씨를 맞아 가족까지 근 2백명의 교포들이 붐비었다.

35인치짜리 파이크로 특등상을 탄 함용배씨는 낚시경력이 10년이 넘는 런던교포. 함씨는 부상으로 총영사관이 기증한 노가 딸린 고무보트 1세트등을 받았다.

1등상을 탄 정기섭씨는 30인치짜리 파이크를 낚았다.

정씨는 낚시협회장상을 받았고 한국일보상은 2등 유광현씨에게 돌아갔다.

하오 4시 시상식후 귀가길에 토론토교민 권철웅씨가 자동차사고를 당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권씨가족들이 전했다.

잉어를 잡은 사람(조사)에게 주는 한인회장상은 해당자가 없어 추첨으로 결정했다.

낚시협회는 수상자의 연락을 요망했다.(연락처: 최남해총무 전화=298-7806)

◆특등 함용배(35인치-11파운드)
◆1등 정기섭(30인치-6,5파운드)
◆2등 유광현
◆3등 장홍식
◆4등 김갑술
◆5등 조석봉
◆부부상 최재만 부부
◆노익장상 심의팔(70세)
◆아동상 이희진양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7-3171 ~ 537-317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한국일보
533-2361

Merrill Lynch Royal Seurities Ltd.
금·은·증권·Bonds·RRSP에 대한 투자는
361-3428(B), 447-1374(R) : 강삼욱
증권은 경기변동에 따라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데 경기회복 6개월 전부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많은 투자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일, 이십년만에 한번 올수있는 절호의 기회가 증권투자에. 오고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근거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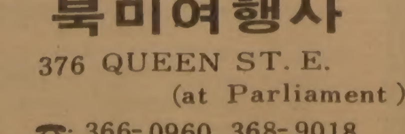
SALON YOUNG

*남.녀컷& 파마전문
*머리염색.머리광택
*각종 미용 악세사리
토론토 최고급
ARTHUR KEITH SALON
에서 10년근무
메리·캐이 화장품 취급
※월요일은 휴업
3074 BLOOR ST.W.
(블루어×로얄욕) 231-4285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주택·대지·아파트
*가게·상가·사업체
*이민이나 면세를 위한 투자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가능
각종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신속 정확하게 성심 성의껏 노력 하겠아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희망합니다.
—경 력—
★수퍼마켓 소유 운영2년
★무역회사 소유 운영2년
★부동산업 종사 7년이상
★케네디안 대학 졸업
(416) 497-8900 (B)
(416) 633-7892 (R)

채 준 성
DAVID CHAE

KIM'S 미용실
여름철 특별봉사
남녀파마, 스타일
($25&Up)
웨딩드레스 대여
신부화장 전문
Kim's 미용실
668 Manning Ave.
(B)532-7094 (R)438-0628
Mrs. 오

8.15 경축
모국방문단모집
출발일 : 1982년 8월 10일
귀 환 : 자유
요 금 : 그당시 적용되는 가장저렴한 단체요금
정 원 : 30명 (선착순)
특 전 : 8. 15 경축식 참석 관광및 산업시찰 (3 박4 일)
등록마감 : 1982년 6월 15일
예약금 : 1인당 $100.00
※여권및비자일체수속및봉사제공

북미여행사
376 QUEEN ST. E.
(at Parliament)
☎: 366-0960, 368-9018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0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영국 구축함 또 1대 파손

알젠틴공군 우세, 인명피해 알수없어

(런던)알젠틴 공군은 포클랜드에
상륙을 감행한 영국 해군에 맹폭격을 가해 지난 4일 침몰한 구축함 HMS 쉐필드호와 맞먹는 규모의 구축함 1척을 25일 크게 파괴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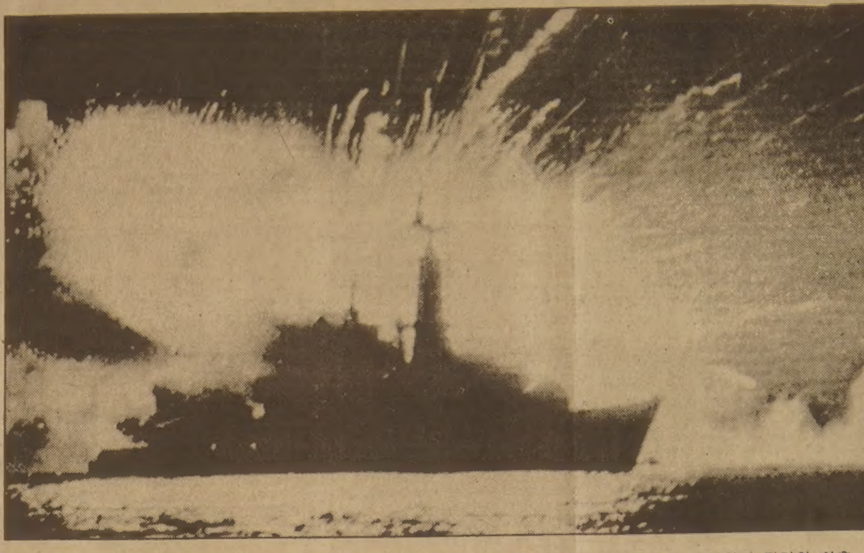
존·노트 영국국방상은 25일 TV인터뷰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슬픈 소식임을 솔직히 밝힌다"면서 구축함 피격소식을 전했으나 그 이름과 사상자수는 밝히지 않고 다만 구조작업이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21일 아침 영국군은 육·해·공 전면 공격을 감행 상호교전에서 영국군은 순양함 1척을 비롯 수척의 함정이 피해를 입었고, 알젠틴군은 3대의 스카이학 전투기와, 2대의 헬리콥터등이 손상한 것으로 보도됐었다.

25일 파괴된 구축함은 타입 42로 평상시에 승무원 280명이 승선하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존·노트 영국국방상은 이날이 알젠틴독립기념일이라 대규모 공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다고 말했다.

가정의 벗 한국일보



◆22일 동 포클랜드해안에서 미라쥬전투기의 공격으로 폭발, 침몰한 HMS 안텔로프 순양함의 장렬한 최후.

찰스·듀빈판사 임명 아기 사망사건 전담

온타리오주 최고법원의 찰스·듀빈판사가 식·칠드런병원 아기사망사건을 전담할 판사로 임명됐다.

25일 래리·그로스맨 보건장관은 식·칠드런병원의 공신력을 회복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듀빈판사의 임명을 발표했다.

한편 토이·매머트리 검찰총장은 가까운 장래에 43명의 아기가 심장병특효약 "다이적신(Digoxin)" 과용으로 죽은 사건에 관한 공개수사가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었다.

이 사건에서 경찰에 체포, 입건됐던 수잔·넬레즈양은 지난 21일 증거불충분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풀려났다.

이민의 문화적·사회적 자아(Identity)를 밝혀 가는 신문.
토론토 한국일보

북한 영화「춘향전」상영 템포느리나 칼라좋아

토론토한인회관에서 불과 2km 거리에 있는 일본문화회관에서 북한측이 제작한「춘향전」이 상영됐다.

「캐나다-한국우정협회」(Canadian Korean Friendship Ass'n)라는 단체가 주최한 시네마스코프 춘향전은 일제시대의 명배우 문예봉이 월매(춘향어머니)역,「인민배우」유준원이 이몽룡, 김영숙이 성춘향역을 맡은 것으로 관람자 1백여명 교민중 일부 사람들은 "색도처리, 무대(셋), 연기등은 무난했으나 사건의 전개가 너무 느리고 전체적 영화 구성면에서는 수준이하이다"고 평했다.

특히 포옹 한번없이 단둘번 서로 손을 잡잔 잡는 것으로 끝나는 정도의 사랑장면, 휘나레등 극적 장면, 방자와 향단의 재담도 볼 수 없었다. 북한의 폐쇄성을 보이는 이 영화의 대사중에는 북한지방 액센트가 간혹 섞여 있었다.

한 교민은 "영어자막이 들어갔고 정치적 선전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외교민 선전용으로 제작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영어자막은 가까스로 뜻은 전달할 수 있었으나 관용어, 철자가 엉망이었다. 예를 들면「헬로」를 Hello대신 Hellow라고 썼다.

토론토의 북한측동조자들은 앞서 복합문화TV MTV를 통해 이를 방영기도했다가 실패했다.

이 영화는 작년 11월3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북한계주선으로「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 기독자 간의대화」모임에서 처음 상영됐었다. 이 모임에는 토론토에서 최홍희, 전충림(보도), 박정태(태권도사범)등과 미국서 최덕신, 선우학원씨등이 참석했다.

한국학생 외국유학 증가일로 미국이 74%, 경영학 1위

(서울26일=연합)작년도 한국학생들이 가장 많이 유학한 곳은 미국이며, 가장 많이 택한 전공은 경영학이었음이 통계에서 밝혀졌다.

해외개발공사가 26일 밝힌 바에 따르면 전체 4,655명 유학생중 3,449명이 미국으로 유학했고 그 다음이 서독 394명, 일본 222명, 프랑스 158명이었다.

전공과목은 1,111명, 23.8%가 경영학을 택했고 20.4%가 공과계통이었다.

80년도 통계로는 공과가 한국유학생의 최고 인기전공과목으로 꼽혔었다. 이같은 경향은 한국내에 경영전문가의 수요가 딸리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밖의 인기과목은 언어학(427명), 음악(286명), 미술(267명), 교육학(200명), 문학(158명), 정치학(127명)등의 순이다.

父子가 無敵海兵출신

포클랜드上陸 진두지휘 무어 英海兵少將

포클랜드군도 상륙작전 진두지휘한 영국측의 제레미·무어육해군 합동사령관은 자신이 이끌고 있는 영국해병대의 위력만큼이나 기도의 힘을 믿는 독실한 기독교신자로 알려졌다.

54세의 존·제레미·무어 소장은 1947년 센텐함대학을 졸업하면서 곧바로 영국해병대에 투신, 예비소위로 임관되었다. 그후 진급이 빨라 1965년에는 구르카연대장을, 1968년, 69년에는 HMS 벌윅크해양책임자를 역임했다.

그는 말이 없고 수줍은 편이지만 극동지역부터 북극까지 순항하면서 모든 군사기술은 섭렵해 전술에 상당히 능통하다. 북극지방 순항때는 특별히 생존전술을 익혀 영국군들이 이번에 남대서양 추위에서도 잘 견딜수 있도록 지시, 그의 진가를 발휘했다.

무어소장은 전술이 짧은 편이지만 군복속에는 항상 성경과 세익스피어의 단시집을 소지하고 다닌다. 그래서 밤이면 꼭 성경책을 읽는 버릇이 있다고.

아버지가 같은 해병대 중령출신이기도한 무어소장은 1979년 영국해병대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으며 이번 포클랜드사태가 발생하면서 육해군합동사령관으로 발탁 되었다.

〈소론〉 (2)

승공사상은 가정교육에서

이근우(승공문화협회 회장)

◆이근우씨

우리 부모들은 정말 깊이 생각할 점이다. 부모들의 무관심속에 자녀들을너무 방치해두는 시간이 많은것같다.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공부하고있는 동안에 학업시간을 뽀이콧하고 도서관으로 몰리는 학생수가 얼마나 많은가! 혹시나 그 속에 내 자녀가 있지나 않나? 왜 도서관으로 몰려야 하는가? 부모자녀 간에 너무 관심사가 적다고 본다. 학생 모두다 선량하고 착실한 우리의 자녀이다. 인간성 있는 성인으로 성장시켜야 한다.

어떤사람은"다 큰 자식을 내마음대로 안되는데" 하고 반문하는 분이 계실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이유가 되지않는다. 자기책임을 회피하는것 밖에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부모들은 자기자녀에 관심이 크다면 한번쯤 대학도서관을 노크해 보는것이 좋을줄 안다. 자우간 공산도배들은 어떤틈을 타서라도침투해 온다. 더군다나 캐나다는 자유민주주의의 표본된 나라이다. 어떤 범행도 완전증거가 있을적에 법에 입건이 되는것이다.

이번 암살음모사건만 보더라도 증거포착까지 반년여가 걸렸다. 이것이 인권을 완전히 옹호했기 때문이다.

교민들의 안일한 틈을타서 법에허용된 공간을 이용한것이 공산도배의 음모장소로 토론토가 제물로된 것같다.

캐나다는 우리조국보다 더 강력한 반공국가라는것을 여러분은 재확인 하였을줄 안다.

우리가 시민권을 가지고 캐나다 시민행세를 하여도 피부, 머리카락, 피가 변치 않는이상 천년만년 지나도 대한의 자손이라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아래는 필자가 캐나다어떤 정부와 대화를한 한토막 이야기다.

담당한 관리가 바로 일본인 3세이다. 유창한 영어로 말을 하길래 "너 일본말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전혀 모른다. 우리 조상이 가르쳐 주지 않아서 모른다"면서 얼굴이 홍당무가 되며 가끔 외국인이 와서 물을 적에 망신을 당한다고. 그래 자기는 아들에게 일본말과 일본역사를 가르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런 사실과 마찬가지로 우리 2세, 3세가 우리말을 말하기, 쓰기, 보기, 그리고 역사를 모르면 자라서 그 자체에서 오는 비애, 1세에 대한 크나큰 원망을 어떤 식으로 대답하겠는가? 그 책임을 어떻게 면할 것인가? 자손에게 비운을 줄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우리말과 영어를 평행해서 공부를 가르치면 영어공부에 다소 지연이 되더라도 나중에는 정확성 있는 영어를 하게 되는것을 우리 부모는 깊이 반성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다.

또한 2세는 6.25사변을 모른다. 공산도배의 침략으로 인한 그 당시의 참상을 자손들에게 일깨워 공산도배의 악랄한 짓을 길이길이 잊지 않도록 전해주어야 하겠다.

자유를 갈망하는 폴랜드국민에게 하루 속히 자유가 오기를 하느님께 기도드리며, 교민과 더불어 조국 대한민국에 평화와 행복이, 통일이 이루어 지기를, 자유가 길이길이 같이 하기를 하느님께 기원 드린다.

한국, 백만불 장학기금 미국거주 한인학생들에

(서울22일=연합)한국 정부는 한미수교 백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의 하나로 미군거주의 한인학생들에 금년 가을학기부터 백만불의 특별 장학금을 설치키로 결정했다.

지난해 전대통령의 미국방문을 계기로 계획된 이 장학제도는 워싱턴주재 한국대사를 위원장으로한 장학금 운영위원회가 장학생 82명을 선정, 백만불 장학기금의 년이자액인 12만달러를 나누어 지급하는데도 선발대상이 된다.

〈장편연재〉

영원의 방랑객 ㊺

고 마태오

제4장 딴따라 미사의 파동

안타까운 심정이었으나 나는 그분에게 순명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날 나는 밤늦게 다시 부리노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에게 기이에 본당신부의 의도를 알렸다.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제안을 또 내게 했다.

"공의회와 함께 교회안에도 일종의 자유화와 민주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으나 몇백년 동안 지켜온 전통에 대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하루 아침에 달라질 수 있겠읍니까. 신부님, 우리는 많이 참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의 시도는 해야합니다."

"물론, 당신이 말한 최선의 시도를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현싯점에서 우리는 뭣을 할 수 있다고 당신은 생각합니까?"

"만일 교회의 현재체제 아래서 길거리 미사가 불가능하다면 말씀의 전례만이라도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말씀의 전례를 말하는 것입니까?"

"신부님, 교회의 법과 제도를 잘 모르는 저지만 주님의 복음은 꼭 성당에서만 전하라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사 자체가 거룩한 것이어서 길거리에서 지낼 수 없다손 치더라도 복음말씀은 어디에서나 구애받지 않고 전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이 복음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주일미사를 대신할 수 있는 말씀의 전례를 이 길거리에서 저와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무슈 아스랑, 나는 복음을 전해야 할 신부의 몸이지만 교계제도라는 질서에 매어있는 몸 입니다. 즉 본당신부나 주교의 허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제의한 그 전도도 내 임의로 결정할 수 없읍니다."

"그러한 신부님의 사정이라면 저 혼자서 해 보겠읍니다. 비록 저는 교회에 속해있는 몸이지만 교계제도라는 질서밖에 있는 평신도 이니만큼 누구도 제가 하고자 하는 전도사업을 제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만 신부님께서 주일 복음말씀을 풀이해 주시면 제가 대신 전하겠읍니다. 그 정도의 협조는 능히 하실 수 있겠지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부리노의 집념은 대단했다. 나는 그의 그러한 사도적 태도 앞에 신부로서의 양심의 가책과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교회제도에 대한 일종의 반항심이 머리를 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러자 내 마음은 슬퍼졌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신부가 되었는데, 단지 교회의 제도때문에 내 양심대로 자유로이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은 슬픈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또한 교회에 순종해야 할 신부였다. 나는 내 아상과 내 뜻을 실천하기 위해 신부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리하는 교회의 이상과 뜻을 받들기 위해 신부가 된 몸이다. 이러한 뜻에서 나는 내 개인의 양심보다 교회의 제도를 더 중히 여겨야만 한다. 교회의 제도나주교의 명령을 거스를때 나는 신부로서의 존재성을잃게 되는 그러한 몸이다. 하지만 나는 복음을 전해야했다. 바로 복음전달 이라는 이 사명을 위해 나는신부가 된 것이 아니었던가? 그럼 신부라는 내 존재성에서 오는 교회에 대한 순종과 내 사제적 양심에 비친 복음전도에 대한 사명의식을 어떻게 조화시킬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좋은 방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때 내마음에서 피가 나는 듯한 아픔이 내 호흡을 답답하게했다. 마담 아스랑을 불러 맥주를 한잔 가져오게 했다. 얼음처럼 찬 맥주를한 잔 쭉 마시니 기분이 얼마쯤 시원해졌다. 그러나 답답한 심정만은 매한가지였다.

"신부님,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오는 주일날 오후 저 혼자서 그 일을시도해 보겠읍니다. 저는 평신자의 몸이니 신부님처럼 제도에 얽매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신부님께서 주일강론을 대신 할 수 있는 성경말씀을 알기쉽게 풀이해 주십시오."

내 고통스러운 심정을알아차린 부리노는 나를 위로하듯 조용하고 다정하게 말했다.

"무슈 아스랑, 그일은 내가 해야 합니다. 나는 복음전도를 위해 신부가 되었으니까요."

나는 얼떨결에 그렇게말했으나 뭔가 그와 함께 해보자는 결심만은 가졌었다.

"태오 신부님, 일의 시작은 제가 하겠지만 신부님께서 그 일의 마무리를 짓게 되실 것입니다. 역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아직도 신부없는 평신도만의전도사업이 허용되지 않을테니까요. 교회법에 거슬리지 않는 일이라면 저는 이웃 형제자매들을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해볼 작정입니다."

그는 단호하게 자기뜻을 말하고, 천정 한구석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 때 그의 표정은 지극히 평화스러워 보였고, 또 성스럽게 보이기도 했다.

다음날 아침 나는 기이에 본당신부를 찾아가 어제 부리노와 주고 받은 대화의 내용을 자세히 보고했다. 물론, 부리노가 자기혼자의 힘으로라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의 결의도말했다. 그분은 아무 말없이 한참이나 있다가 무겁게입을 열었다.

"태오 신부, 요즘 공의회가 불어 일으킨 쇄신운동 앞에 교구신부들이 찬성, 반대 양파로 갈라져어수선한 교구실정을 감안해볼 때 부리노가 제의한 길거리 미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그가 하겠다는 가두전도는 누가 막을 수 있겠소?"

"아무도 그것만은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당 신부님, 한 평신도가 가난한 이웃을 위해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서는데, 우리들 신부들은 그것을방관만 하고 있어야 하겠읍니까?"

나는 다소 흥분되어 말했다.

"방관할 수야 없겠지…"

그분은 어려운 표정으로 힘없이 말했다.

"그럼 뭔가 우리들이 먼저 해야만 되지 않겠읍니까?"

"사실은 말이야, 태오 신부. 부리노가 하겠다는 가두전도도 문제는 문제지만 그보다도 나에게 있어 더 큰 문제는 당신 자신에 관한 문제라오."

그분은 내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레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이 왜 이런말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제가 어째서 신부님에게 문제가 되고 있읍니까? 혹시라도 제가 실수를 저질렀나요?"

"그게 아니오. 말하기 부끄러운 것이지만, 요즘 본당의 신부들이 당신을 시기하고 있소. 그리고 새신부가 너무 설친다고 당신을 비난하고 있다오. 그게 문제란 말이오."

"뭐, 저를 시기하고 비난하고 있다고요? …"

나는 도무지 본당신부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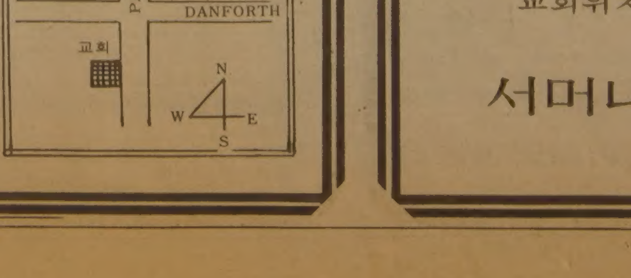
"그렇소. 당신이 동기가 되어 부리노가 회개한 것도 이젠 우리 본당 신자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바요. 우리들 서양인 신부들이해낼 수 없었던 일을 새 신부인 동시에 외국인인 당신이 완수한데 대해 우리는 감사해야만 하나,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가 못한 것같소. 이러한 우리 본당의 실정을 잘 알고있는 나로서는 뭣보다도 당신을아끼고 싶소. 만일에 당신이 부리노와 함께 길거리미사를 지낸다든가, 아니면 가두전도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교회 예배처 이전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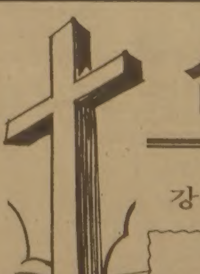
교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 금번 저희 시민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교회 예배처를 이전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교민여러분의대전의 지도와 관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새예배처 : Riverdale Presbyterian Church
  주소 : 662 Pape Ave. Toronto (Pape 써브웨이 텐포스남쪽 건너편에 위치함)
- 이전일 : 1982년6월6일(주일)
- 예배시간 : 매주일 오후2시정각

1982년 5월 일



시민교회당회



심령대부흥회

강사 : 최홍석목사 일시 : 1982년6월3일~6일

3일(목)밤8시	4일(금)밤8시
5일(토)새벽6시	6일(주일)새벽6시
낮11시	오후2시
밤8시	밤 8시

※한국에서 22년간 대교회를 (북상교회) 담임하셨고 현재 보스톤 교회에서 시무하시며 세계 13개국에 27가정, 선교사를 파송시킨능력있는 주의종입니다.

장 소 : 서머나감리교회
연락처 : 751-3611, 752-9860, 752-9727
교회위치 : YONGE ST.의 북쪽으로 SHEPPARD를 지나서 FINCH조금 못가서 왼쪽으로 ST.GEORGE ANGLICAN CHURCH.

서머나 감리교회 담임목사
박준하 및 임원일동

실협뉴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제공—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627A Bloor St. W.
Toronto, Ontario
M6G 1K8
Phone: 533-7923
533-8344

〈항공정비사 돕기
항공정비사에게 거처제공
제1호 협회원 유용근씨

독립이민으로 인하여 초기이민생활정착에 큰 난관을 겪고 있는 항공정비사에게 직장과 거처를 제공하자는 협회 호소에 대하여 제1착으로 유용근 회원께서 한가족에게 거주지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협회사무실을 직접 찾아와서 주위사람들을 감격케 했다.

센·클레어 웨스트에서 Y & Y 버라이어티를 경영하는 유씨는 이민초기의 애로를 회상하면서 "큰 도움은 안되겠지만 방 여유가 있으니 한가족이라도 거주에 도움이 된다면 형편이 호전될 때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싶다"고 제의했다. 유씨는"애기가 1~2명 있으면 집의 아이와 친구삼아 더욱 좋겠다"고 덧붙였다.

협회에서는 즉시 한인회를 통하여 항공정비사의 대표인 이종학씨로 하여금 해당자를 추천, 유용근씨와 직접 연락하도록 주선했다.

유용근씨의 온정에 대하여 협회에서는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정비사 2명에게 취업알선
제2호 협회원 곽정렬씨

실업인협회의 부이사장을 역임한바 있는 곽정렬씨(현재 마캄에서 세븐스타 마켓경영)가 5월25일 킹스톤로드에서 신설중인 상점과 제씨의 꽃가게에서 일할수 있는 항공정비사 2명을 채용하겠다고 전해왔다.

곽씨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교포들을 서로도와가면서 살아야하지 않겠느냐"고 하며 "남의 일 같지 않다. 두분에게 직업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협회에서는 한인회를 통해 즉시 두분을 선정, 곽정렬씨에게 연락하도록 조처했다.

Sales Tax에 관한 추가소식

Sales Tax에 관한 질문이 상담실로 답지하고 있으므로 세무서를 통하여 문의한 몇가지 사항을 간추려본다.

▲봉지에 들은 쿠키는 파거와 같이 면세이고 스넥으로 먹는 케이크(Vachon등)는 파세임.

▲음료에서 drink는 파세이고 juice는 면세임. 예를 들면 Orange drink는 파세이고 Orange juice는 액체이든 냉동된 것(Old South등)이든 면세임.

▲Ice Cube는 면세.

▲T.V.가이드는 파세.

성장하는 우리실협
성공하는 나의사업

협회사무원에 이명신양 추가

과중한 업무량과 회원들의 편의를 위한 쿠폰대행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이명신양이 새로 채용되어 5월25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

이로써 협회사무실에는 상담실장겸 사무장인 강공선씨 그리고 경리사무원 서선미씨와 더불어 3명의 사무원이 상조하게 됐다.

많은 지원자중에서 선발된 이양은 5년전에 이민와서 이곳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후 현재 험버 칼레지의 Interior Design Course에 재학중이다. 이양은 회원 김창화씨의 처제이다.

이명신양

실협교육강좌 시리즈III
Tax Claim할수 있는 Expense의 한계

—김인규공인회계사편—

김인규씨

실협의 발전을 축하한다.

제목이 "Store Owner의 Income Tax Deduction한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떠한 경비를 Tax claim할 수 있고 그 한계는 어떠한가?"라고 바꾸어서 말씀드리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합리적"(reasonable)이란 말이 가장 적합한 말이라고 할수 있다. 즉 어떠한 절대액을 결정한 것이 없고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으로 납세자가 자진해서 계산하여 신고한 것을 검토해 본후 합당여부를 세무당국이 판정하게 되어있다.

◉인건비(Wage expense)—인건비란 월급만이 아니고 고용인에게 지불하는 모든 경비(OHIP, 자동차경비, 숙박비, 선물($100이상), 교육비,년금,실업보험금,상해보상금등)가 포함되므로 고용인의 taxable income에 삽입되어야 한다. 새 세법에 나와있는 조항으로 low cost interest(업주가 싼 이자로 종업원에 loan해준것)가 있는데 이것은 81년중 년 12%이하의 이자로 얻은 loan에서 받은혜택중 $50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부 taxable income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다. 그외에 회사차 사용의 혜택, dental plan, free transportation, lodging, boarding, 퇴직금, R.R.S.P.(최고한도 $3,500), differed profit sharing, personal service corporation등이 taxable income에 새로 삽입되었다.

◉자동차경비(car expense)—깨스, 수리비, 보험료, 감가상각, installment pay의 이자등 많은 항목이 경비로 청구가 되지만 역시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합리적이어야 하므로 파도한 크레임은 차후 불행을 자초하는 원인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새 세법에 의하면 회사차를 lease했을때에 rent의 5/6가 income으로 간주되어 불리하게 고쳐졌고, lease가 아니고 매입했을때에도 과거에 차원가의 12%였던것이 30%가 income이 되고, 감가상각도 종래의 30%에서 15%만 인정하고 있다.

◉Sales Promotion및 entertainment—이것도 역시 reasonable해야하고,예를 들어서 식당에서의 bill같은것은 같이 식사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는 것이 좋다.

golf club, yacht club fee는 expense에서 제외되었다.

◉Donation—과거 Net income의 20%를 초과할 수 없었는데 신세법에는 5년까지 연장 claim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중에 retail sales tax는 손님에게서 받은 것을 내는 것이므로 expense가 될수 없고 시가 부과하는 business tax, realty tax는 경비로 뗄 수 있다. 수입세나 부과세도 역시 원가로서 경비로 간주할수 있으나, 체납으로 인한 이자는 경비가 될 수가 없다.

◉감가상각(Depreciation)—자동차는 30%, taxi는 40%, 가옥은 5%, 장비는 최고 20%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매년 감가상각 처리를 하며는 세금혜택을 받게 되지만 팔때 산 가격 또는 그 이상을 받으면 이익금을 모조리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capital gain tax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실제로는 장비의 마모가 없다는 것이 타당치 않지만 세법상으로는 용인하므로 감가상각을 안하는 것이 유리하다. 권리금(good will)과 franchise fee도 매년 10%씩 까 나갈수가 있는데 이것 역시 감가상각과 같은 현상이므로 하지 않는것도 좋다. 예술품(art work)을 제외하고는 감가상각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자(Interest expense)—low cost interest는 이미 설명했고 생명보험이나 R.R.S.P. 등 장기적인 투자에 대해서 실지로 나타나지 않는 숨어서 자라고 있는 이자도 3년마다 한번씩 계산해서 수입으로 넣도록 되어 있다.

과거에는 여분으로 집을 사서 rent는 income으로 잡고 mortgage이자는 expense로 잡아 그 결손액을 자기 income에서 뺐는데 신세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rent income이 $5,000이고 모게지 이자가 $10,000이었을때에 $5,000만 expense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capital loss로 간주해서 반만 claim할 수 있어서 다른 capital gain과 offset시키던지 년 $2,000만 claim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

돈을 꾸어서 R.R.S.P.를 들었을 때 82년도부터는 이 이자는 expense로 못하게 되어 있다.

◉1가족1주택—과거에는 주택과 cottage 하나씩을 한 가족에 무세로 인정했는데 부자들이 아들 이름으로 cottage를 사서 팔기 때문에 현재는 거주하는 주택하나만 인정한다. 그리고 18세 미만의 아이가 샀다 판것은 capital gain으로 인정한다.

◉Pension Income— $1,000까지는 공제해 주었는데 인정하지 않는다.

◉Working Process— 치과의사가 이를 치료했더라도 bill을 보내지 않은 것은 그해의 income으로 산입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일한 부분은 전부 income으로 간주한다.

◉부양가족— Capital gain으로 50%가 taxable income인데 과거에는 당년의 income으로 하지 않고 여러해로 나누어서 수입으로 잡을 수 있었던것이 폐지되었다.

그리고 권리금은 다 받지 못했더라도 약정된 금액은 전액이 당해년도의 수입으로 간주된다.

이상 요점만 간략하게 신세법에 입각해서 경비로 뗄 수 있는 범위를 말씀드렸다.

연령주별인구변동으로
새로운 시장성향 형성

71년~81년까지 10년간에 캐나다 인구증가는 12.2%에 불과하나 연령별과 주별 인구증가는 현격히 달라 시장개척자들의 구미를 당길 수 있는 뚜렷한 경향의 변화를 가져왔다.

예를 들면, 캐나다 전체 인구의 증가는 년평균 1%라고 쉽게 말할 수 있으나 앨버타주는 71년이래 10년사이에 32.8%가 늘었고, B.C.주는 전국증가율의 배인 24.2%가 증가하였다.

전국적인 증가율에 미치지 못한 7개주는 P.E.I.,노바스코시아, 뉴부런스위크,퀘벡,온타리오,매니토바 그리고 사스카치완이다.

매니토바와 퀘벡은 10년간에 겨우 각각 4.1%와 5.2%의 부진을 나타냈다.

인구를 연령층별로 살펴보면, 1980년 현재 전체 캐나다인의 23.4%가 50세 이상이었고, 19세미만은 불과 32.9%, 이중 9.9%만이 15-19세에 속하여 결국 전체인구가 계속 늙어가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가족을 구성하는 연령층을 보면 20-34세까지가 26.6%인데, 소비성향이 큰 계층인 35-50세는 불과 17.1%밖에 안된다.

—알 림—

◆5월27일(목)과 28일(금) 양일간 전물수리사정으로 간간이 협회사무실의 전화가 불통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린다.

◆5월17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Coca-Cola Promotion공고중 대상품목에 Coca-Cola, Tab, Sprite의 3개 품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필수적으로 진열해야 하는 대상품목을 말하는 것으로서 Sprite는 55센트가 아니므로 착오없기 바랍니다.

◆광고한 바와 같이 6월1일(화)은 하오 3시부터 8시까지 협회사무실 확장이전을 자축하는 날이오니 회원제위께서는 잠시 틈을 내시어 들르셔서 친교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통계국 추계

연령별 인구현황(71~80년)

	인 구	전체의%	71~80 변화율%
5 이하	1,783,800	7.5	-1.8
5-9	1,775,700	7.4	-21.2
10-14	1,940,800	8.1	-16.0
15-19	2,360,500	9.9	+11.6
20-24	2,331.500	9.7	+23.4
25-29	2,114,500	8.8	+33.5
30-34	1,941,000	8.1	+48.7
35-39	1,552,600	6.5	+22.8
40-44	1,264,400	5.4	-1.7
45-49	1,250,400	5.2	+0.9
50-54	1,220,300	5.1	+15.9
55-59	1,164,300	4.9	+22.0
60-64	934,800	3.9	+20.3
65-69	820,600	3.4	+32.4
70 이상	1,461,300	6.1	+30.0
계	23,936,300	100.0	+11.0

10년간의 주별 인구증가 현황

주 별	81년6월인구 (추산)	71년6월 인구조사	71~81 증가율
뉴파운드랜드	586,100	522,104	12.3
P. E. I.	124,500	111,641	11.5
노바스코시아	857,600	788,960	8.7
뉴부런스윅	711,400	634,557	12.1
퀘벡	6,340,400	6,027,764	5.2
온타리오	8,627,800	7,703,108	12.0
매니토바	1,029,100	988,247	4.1
사스카치완	979,600	926,242	5.8
알버타	2,162,300	1,627,874	32.8
B.C.	2,712,500	2,184,621	24.2
유콘및 북서	64,000	53,195	20.3
계	24,195,300	21,568,311	12.2%

사무실이전공개리셉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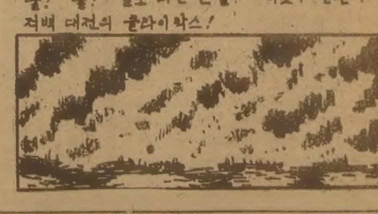
협회 사무실을 이전하고 새로히 단장한 여러분의 사무실의 선을보이고자 아래와 같이 자축회를 갖기로 하였사오니 꼭 들르셔서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시 : 1982년6월1일(화)
오후3시부터 8시까지
장소 : 협회사무실
627A Bloor St., W.
Toronto, Ont. M6G 1K8
한국은행건너편 외환은행쪽)
533-7923

〈부탁의 말씀〉
장소관계로 축하화분은 사양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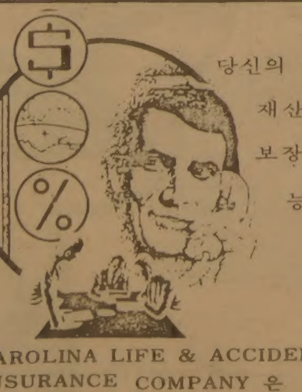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단체손님 환영,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실성의 [illegible], 염가로
봉사합니다.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프로축구 블리쟈드를 즐기자
입장권 예매처
한국일보사 533-2361
브랜돈스포츠 598-3732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 영 철

실협회원만이 가입할수있는 단체상해보험



당신의 가장 귀한 재산은 수입을 보장할수 있는 능력입니다.

CAROLINA LIFE & ACCIDENT INSURANCE COMPANY 은
당신의 수입의 손실을 보호해드립니다.
◇사고 당일부터 현금으로 드립니다.
◇별도 지정인이 없는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정부나 기타 보험회사의 보상에 관계없이 별도로 지급해 드립니다.
◇직장내외를 막론하고 24시간, 365일 보호합니다.
전화224-2235 DEAN VERNON 을 불러 주세요.

교민친선축구대회

금번 축구협회에서는 하기와 같이 교민친선축구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이 참가하시어 대회를 더욱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2년7월10일 오전9시
장 소 : Centenial Park
참가비 : 청소년($50) OB 30세이상($70)
신청마감 : 1982년7월3일
연락처 : 총무 권성웅 752-6023
경기 박원모 424-2439
922-2127
시 상 : 청소년1, 2, 3 참가상
OB팀 1, 2, 3 참가상

※본 협회는 5월29일부터 매주 토요일 하오4시 토론토 서니부룩·파 구장에서 축구규칙,기술등을 무료로 지도함. 팀 또는 개인, 남녀노소 불문.(연락처 신강용 251-6578)

후원 : 한인회 체육회
캐나다축구협회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英、포클랜드 橋頭堡확보

2千5百명 4개海岸상륙

英國軍 53명死傷·戰鬪艦2척 침몰

아르헨 미라지등 航空機21대 被擊

◇國旗 올리는 英海兵들 21일 포클랜드군도에 상륙한 英國해병특공대가 영국국기를 게양하고있다。【포클랜드22日AP=聯合】

【부에노스 아이레스 22日=李梓昇특파원】 21일 미명을 기해 감행된 영국군의 말비나스(포클랜드)군도 상륙작전에서 치열한전투로 육해공에 걸쳐 영국군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2일에도 아르헨티나 수비군과 육상거점을 강화하려는 영국군과의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

아르헨티나정부는 21일 하오 합참본부코뮤니케를 통해『산카를로스전투에서 이날 영국의 프리기트함4척을 대파, 이중 2척을 침몰시켰으며 또한다른4척의 프리기트함에도 피해를입혀 작전에 참여한70%가 전투능력을 상실했다』고 발표했다.

이 코뮤니케는 또한『영국의 시·해리어機3대와 헬리콥터2대를 격추시켰으며 상륙에성공한 영국특공대도 현재 아르헨티나 육·해·공3군의 반격을받고있다고 덧붙였다.

갈티에리 대통령은 21일에 이어 이날도 멘데스외상과만나 유엔대책을 협의하는 한편 하오에는 해·공군 참모총장등과 심야군사위원회 회의를 갖고 이날의 전투상황을 분석, 영국군의 상륙에 따른 대응전략을 검토했다.

이에따라 멘데스외상은 22일 새벽0시30분 뉴욕으로떠났다.

멘데스외상은 말비나스島사태를 논의하는 유엔안보리이사회의에 참석,아르헨티나의 입장을 밝힐예정이다.

한편 전투지역과는 2천2백여㎞나 떨어져있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시민들은 합참본부가 간헐적으로 발표하는 전환뉴스에 온신경을 기울였으며 합참본부는 이러한 시민들의 사기에대한 영향을감안, 일방적으로 아르헨티나군의 전과만을 발표하고있으며 영국군의 상륙사실을 밝힌것도 작전개시 12시간이후였다.

영국군은 교두보확보에 성공하면 다음목표는 다윈이될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의 군사전문가들은 영국군은 산카를로스의 상륙작전으로 아르헨티나군의 주목을 돌리기위해 포트스탠리, 폭스베이, 다윈등 4,5개소를 함포와 전폭기로 공격했다고말하고 영국군이 산카를로스지역을 겨눈것은 영국함대가 세필드호를 격침시킨 아르헨티나공군의 엑소세미사일 같은 장거리 저공미사일의 공격을 피할수 있다고 판단했기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르헨티나의 군사전문가들은 영국특공대의 상륙작전은 거의 공중지원이없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영국특공대가 일단 교두보 확보에는 성공했으나 제공권을 상실하고있어 아르헨티나군의 陸空협동반격작전에 밀려 교두보유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런던22日AP=聯合】존·노트영국방상은 21일밤 영국군이 포클랜드군도의 배후에『확고한 육상거점을 확보,이를 강화하고있다』고 말함으로써 영국군 상륙부대가계속 육상에서 작전을 강행할것을 분명히 했다.

영국해병대와 공정대는 21일새벽 어둠을틈타 동포클랜드섬의 서북쪽 산카를로스항구에 상륙, 해안교두보를 확보했다고 영국국방성은 발표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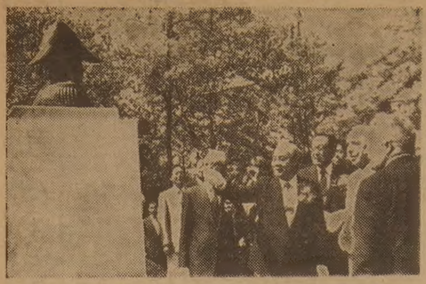
보도에 따르면 약9천명의 아르헨티나군이 포진중인 포클랜드에 상륙한 영국군병력은 2천5백명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써 포클랜드군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영국과 아르헨티나간의 전투는 이날을기해 陸·海·空3면전으로 크게 확대됐다.

노트 영국방상은 이날하오 성명을통해 영국과 아르헨티나간의 치열한 공중전에서 아르헨티나공군의 미라지기9대와 스카이호크기5대,푸카라스기2대, 헬리콥터4대가 영국해리어기에 의해격추됐으며 각각 1대씩의 치누크기와 푸마기가 지상에서 파괴됐다고 밝혔다.

韓美修交百年 기념식

어제 仁川 自由公園서



◇仁川自由공원에서 열린 韓美수교1백주년 기념식이 열려 조약에 서명한 美대표 슈펠트제독흉상이제막됐다。【李昌淳기자찍음】

【仁川=鄭逸和기자】韓美修交1백주년 기념식이 22일상오 인천 자유공원에서 거행됐다.

한국측에서 劉彰順국무총리, 金溶植한미수교기념사업추진위원장, 金瓚會인천시장이, 그리고 미국측에서는 레이건美 대통령특사 라이만·렘니처前駐韓유엔군사령관과 조약서명자인 로버트·슈펠트제독의 4代孫 로버트·슈펠트4세등이 참석,공원녹지대에 슈펠트제독의 흉상을 제막하고 수교기념비를 기공했다.

劉총리는 축사에서『조약체결당사자인 슈펠트제독이나 申櫶대신은 韓美관계가 1백년동안 이처럼 크게 발전할줄을 예상하지 못했을것』이라고 전제하고 韓美양국은 이제 정치,경제,사회,文化등 전반적인 面에서 보다 원숙한 동반자관계로 발전,강화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劉총리는『韓美관계를 血盟으로 이끈 맥아더동상이서있는 仁川에 다시 韓美수교 1백주년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지난 1백년동안 있었던 우정을 더욱 깊게하는 전환점이 될것이다』고 말했다.

렘니처美 대통령특사도 맥아더동상이 한국어린이들의 손길에 반질반질하게 만져져 우정이 어려있는 것처럼『韓美관계도 동맹국으로서의 유대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래 기념식은 韓美수호조약이 조인됐던 仁川市東區花水洞의 옛 花島鎭터에서 거행할 예정이었으나 주택지로 변한 花島鎭터는 우선 조약서명자인 슈펠트,申櫶의 흉상만 세우고 연차적으로 공원대지를 만들기로 했기때문에 花島鎭터에서 멀지않은 자유공원에서 거행됐다.

모든 K S표시製品에 아프터서비스 의무화

KS표시제품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프터 서비스(사후관리)가 의무화되고 팔린제품의 불량한점이 발견되거나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이를 품질개선에 반영키로했다. 공업진흥청은 이같은 내용의 KS표시허가 심사기준을 마련,오는 9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22일 공진청이 새로 마련한 KS표시허가 심사기준을 보면 종래는 KS표시품이라 하더라도 판매된뒤에는 회사사정에따라 자율적으로 아프터서비스를 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의무적으로하도록 하고 제품에대한 불량사항등을 품질개선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품질향상이 계속적으로 이뤄지도록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같은수의 품질관리인원을 갖춰야 KS허가를 받을수있었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은 업체규모에적합한정도로 관리인원을 축소트록함으로써 기업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품질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그런데 작년말현재 전국의 KS허가공장은 7백78개, KS허가품목은 4백16개나 된다.

프레이저 濠수상 來韓

◇프레이저濠洲수상

맬컴·프레이저 오스트레일리아首相이 劉彰順국무총리의 초청으로 23일 상오11시 특별기편으로 訪韓한다.

프레이저首相은 25일까지 머무르면서 全斗煥 대통령을 예방하며 劉총리와 회담을갖고 양국간의 공동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눌예정이다.

프레이저 수상은 滯韓기간중 板門店을 둘러보고 浦項제철을 시찰할 예정이다.

프레이저수상의 訪韓에는 포콕 駐韓대사, 제프리예인드 수상실차관, 헨더슨외무차관, 화이트수상실비서실장등 25명이 수행한다.

◇滯韓日程

▲23일=金浦공항도착, 盧信永외무장관접견, 板門店시찰, 英聯邦참전기념비헌화

▲24일=환영식, 劉彰順국무총리와경제회담

▲25일=浦項제철시찰, 離韓

검찰총장에 金錫輝씨 內定

◇金錫輝씨

정부는 22일 공석중인 검찰총장에 金錫輝 서울고검장을 내정했다.

◇金錫輝총장 略歷 ★얼굴2면

淸州출신·47세 ▲淸州高·서울法大卒 ▲大邱·서울지검검사 ▲大邱지검부장검사 ▲대검특수부1과장 ▲서울고검검사 ▲청와대사정담당관실 ▲법무부교정국장 ▲서울지검장 ▲서울고검장

韓美 生産的 미래向해 전진

헤이그, 修交1백周년 리셉션 참석

【워싱턴21日=聯合】알렉산더 헤이그미국무장관은 21일 하오(현지시간)한미두나라관계가 과거 어느때보다 긴밀해졌을뿐만아니라 알차고 생산적인 미래를 향해 전진하고 있으며 이제 양국은 오랜 혈맹관계를 바탕으로 세계평화를 위해 새로운 차원의협력관계에 들어서고있다고 말했다.

헤이그장관은 이날 하오6시 美국무성에서 베푼 한미수교1백주년기념 리셉션에서 인사말을 통해 한국이 1백년전 서구국가운데 맨처음으로 미국과 외교관계를 맺은것은 여러가지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지적했다.

헤이그장관은 이어 한국전이 발발당시 도오꾜의 맥아더사령부에서 중위 계급장을달고 무초 주한미대사로부터 전쟁발발소식을 고위층에 전달한 과정을 여담으로 들려주면서 仁川상륙작전, 汶山과 議政府등지에서의 참전경험을 회고했다.

黨憲개정은 없을것

權신임民正총장

民正黨의 權翊鉉 신임사무총장은 22일 黨職개편에 따른 후속인사나 기구개편을위한 黨憲개정은 없을것 이라고 말했다.

權총장은 이날 중앙정치연수원당원수료식에서 이같이 말하고『이번 黨職개편은 특정인의책임을 묻기위한것이 아니라 책임 정치구현을위한 집권당의 의지의 표시였다』면서 후속인사설을 부인하고『조직및기구개편을 위한 黨憲개정은 없을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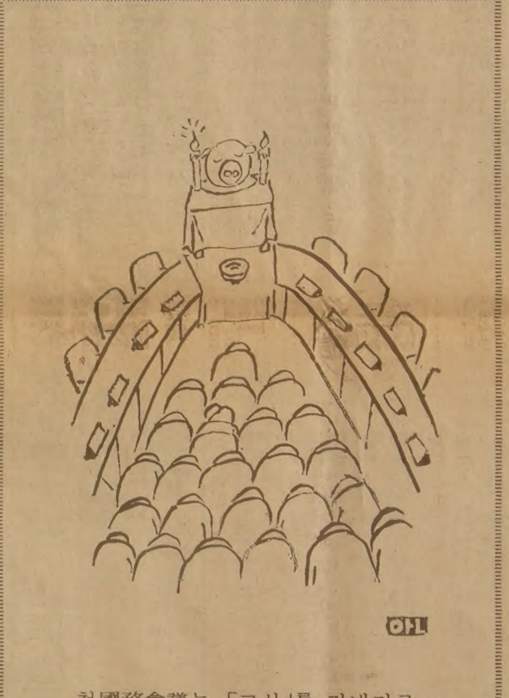
張女人사건 진상 은폐인상 깊었다

民韓 주장

民韓黨은 22일 張여인사건에관해 「국회財務委를통해서본 문제점」이란 자체보고서를 내고『재무위에서 재무장관의 사건경위보고는 배후관계를 고의적으로 은폐하려는 보고로 간주할수 있다』면서『검찰이 사건의 내용과 범인들의 배후를 깊히 수사하지 않고 사건의 규모나 진상을 줄이고 은폐하려는 인상이 깊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는『이번사건이 특권층의 비호없이 1백억 2백억원씩 단시간내에 대출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안된다』면서『李圭光씨및 두 은행장의 구속등으로 부정대출이설명된 입장에서 재무장관이제5공화국정신에 절대용납되지않고 그런사실이 절대없다고 확언한 답변은 지금에와서는 어떤변명도 있을수 없다』고 말했다.

社會漫評



첫國務會議는 「고사」를 지내기로…

江原知事 金孝培씨

釜山市長 崔鍾鎬씨

慶南知事 李圭孝씨

次官級 人事內定

정부는 5·21改閣으로 공석이된 일부次官級을 비롯한 後續人事를 今週初 단행할방침이다. 정부는 24일상오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우선 검찰총장과 合參議長등의 後任등 新任명案을 심의한다. 정부는 22일 검찰총장을내정한데 이어 이번 改閣으로 공석이된 江原지사에 金孝培 내무부치안본부장을, 釜山시장에 崔鍾鎬 慶南지사를, 慶南지사에 李圭孝건설부차관을 내정한것으로 알려졌다.

또 金東輝상공장관의 入閣으로 공석이된 외무차관에는 본부근무로 발령된 李相玉前싱가포르대사를 비롯, 崔侊洙中駐말레이지아대사, 盧載源외교안보연구원장, 沈基哲기획관리실장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밖에 改閣으로자리가빈 합참의장, 국방차관과 사회정화위원장및 一身上의 이유로 사표를낸 金相球統主사무차장의 후임人選도 금주초 결정할것으로 보인다. 한편 尹誠敏합참의장의 국방장관기용과 朴贊兢국방차관의 총무처장관승진에따른 軍首腦의 異動도예상되고있다.

國調權발동 異見여전

與野、24일에再論키로

張여인사건을 다루기 위한 임시국회소집과 國政調査權발동여부를 與野간 의견이 엇갈리는가운데 24일의 총무회담에서 판가름이 날것으로 보인다. 民正·民韓·국민등3黨총무는 21일의 深夜회담에 이어 22일상오에도 절충을벌였으나 國政조사권발동을 싸고 주장이엇갈려 24일 다시 논의키로했다.

이날회담에서 民韓黨과 국민당은 임시국회를열어 國政조사권을 발동할것을 거듭 요구한데반해 民正黨측은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지 않는短期국회를 주장했다.

이날 林鍾基民韓黨총무는『국회를 먼저 소집, 본회의에서 질문·답변을 한뒤 필요하면 국정조사권발동문제를 與野협상으로 해결하자』는주장을했고 李鍾根국민당총무는『국회소집과 함께 국정조사권문제를 표결로 결정하자』고제의했다.

地平線

노래에 音痴가 있듯, 돈에는 數痴가 있는 모양이다. 이 글을 쓰는 사람도 그런축에 낀다. 그 증상의 첫째는 숫자를 대하면 먼저 주눅이 드는 것이다. 컴퓨터로 찍어낸 기다란 종이의 고지서를 받아들면 숫제 「문맹」 같다. 그럴 때는 새삼 數痴感을 느낀다. ▼일전 그 기다란 고지서를 들고 은행을 찾았다. 전기요금이었는지, 수도요금이었는지, 또 정확한 고지금액은 기억에 없으나, 하여간 끝자리가 「33원」인 고지서다. 요즘 은행안은 분위기가 밝다. 응대가 친절하고 재빠르다. 그래도 은행이 서먹한 數痴는, 수납창구를 찾아,말없이 고지서를 내민다. 그위에 1만원짜리 한장, 천원짜리 몇장, 백원짜리 동전 4닢을 얹어 놓는다. ▼창구의 여행원은 고지서를 잠시 살피고, 돈을 셈해보고, 두서너군데 탕탕 도장을 찍는다. 『고맙습니다』―상냥한 인사와 함께 고지서 한쪽을 찢은 영수증을 내준다. 그 위에 백원짜리 동전 한닢이 얹혀있다. 이럴 때 數痴는 당황한다. 『3원…잔돈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여행원은 또 한번 상냥하게 웃는다. 『그래도 셈은 해야죠』 거스름 7원을 받아들고 돌아서면, 왠지 이쪽이 계면쩍다. ▼3원쯤 셈해 받지 않아도, 마감뒤 장부정리에 큰 지장은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3원탕감은 서비스도 아니요, 친절도 아닐줄 안다. 만일 고지서 끝자리가 7원이었다면 어떨까. 이번에는 여행원 쪽에서, 『3원… 잔돈이 없는데요』 할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은행도 數痴나 다름없다. 단돈 3원으로, 은행은 셈이 정확하다는 상식―그위에 선 신뢰에 멍이 든다. ▼아닌게 아니라, 길에 떨어진 1원짜리는 줍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10원짜리·백원짜리는 애들 용돈으로 주기가 민망하다. 그러다 단·십·백의 금액단위가 없어지겠구나 싶지만, 거리의 운전기사는, 범칙금액을 말할때, 「천원」을 「백원」이라 이른다. 신문을 보니까, 깡장이(私債브로커)는 萬자리를 뺀다. 1천만원짜리 어음이 「천원」. 뿐아니라 근래 어떤 손크고, 간큰 여인은 億자리를 빼버렸다. 1억원을 숫제 「한장」이라했다. ▼이같은 수자리의 혼란을 그저 「인플레效果」라고만은 못한다. 그것은 「數개념의 無重力상태」를 말함이다. 그속에서는 너와 나, 은행마저도 數痴가 된다. 근래의 어음사기는 바로, 한줄모르는 「數痴社會」의 羞恥스런 한단면이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불고기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영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구독신청은 533-2361

YOUNG SOOK'S 보석상
o각종보석
o다이아몬드 품질보장
o최저가격
o뉴 디자인
o보석개조 교환매매
o보증서
215 Yonge St. 민 영 숙
(B)368-7961 (R)690-5217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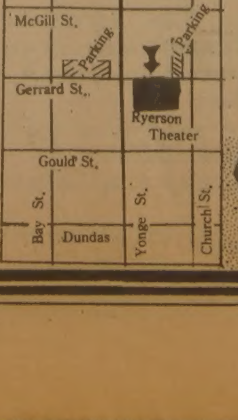
제3회 김용순무용발표회

★초호화판 RYERSON 극장 무대위에
펼쳐지는 5천년 한민족의 얼!!

★2년의 노력끝에 보여드리는
우리 자녀들의 자랑스러운 민족의 제전!!

★남녀노소 우리 온 가족은 물론
이웃의 캐네디안 친구들에게도
우리의 문화를 자랑하자!!

●일 시 : 1982년6월12일(토) 오후7시30분
●장소 : Ryerson Theater 43 Gerrard St. E (Yonge & Gerrard)
★입장료 : A석 $8.00 B석 $6.00
판 매 처 : ⊙킴스카메라(534-1085) ⊙미도파백화점(536-1692)
⊙노년회(755-8079)
(노년회 회원에 한해선 A석을 $6.00에드림)
⊙각 식품점 ⊙각 음식점



출 연 : 김지현, 이민경, 서은정, 송유미, 박쏘나, 이은미, 김미라, 장진이, 김영임, 김소영, 서혜승, 이경, 이숙경, 정은미, 최후로라, 김영희, 곽아나, 곽수미, 박정화, 손스지, 강윤숙, 강진경, 강명진, 김은경, 김은진, 장쥬리아, 매소진, 김용순

찬조출연 : 오재윤, 김정숙

도움주신분 : 유영갑 100불 서준경 100불 이기천 100불 김병권 100불 최우덕 100불 곽정열 100불 김춘탁 100불 한용식 50불 강우석 100불 정태호 100불 손명수(손·BROS) 100불 장필규 100불 김만구(ECOSYS가구점) 100불 김현모(연합상사) 100불 이기훈(무나미트로피) 100불 이창복(펜·아시아) 100불 서형석 50불 유재영 100불 Peel Club. $200 이병권 $300

도움주신단체 : 실업인협회 200불 숭공문화협회 200불 배재동창회 200불 라이온스클럽 200불

총 감 독 : 장기철

주 최 : 한국민속예술후원회(주소 : 619 Bloor St. W. Tor, Ont. M6G 1K8) ☎ : (416)534-1085

후 원 : 토론토총영사관, 토론토한인회, 노년회, 코리아타운번영회, 대한체육회캐나다지부, 대한부인회, 라이온즈클럽, 영리무역, 서울여행사, 배재동창회, "88올림픽후원회, 숭공문화협회 동우회

얼 빼놓고 「뒷문 가슴猛打」

「難攻不落항모」據點 孤立시킨후 消耗戰

21일새벽 영국군의 東포클랜드의 산·카를로스상륙작전은 전형적인 陽動作戰이었다.

이작전은 東포클랜드섬의 동쪽 끝에 자리잡은 州都포트·스탠리를비롯 산·카를로스남부의 포트·다윈 西포클랜드의 폭스·베이에 대한 함포사격및 공중폭격등 파상공격의와중에서 감행됐다.

존·우드워드 영국 기동함대 사령관은 『약 9천명의 아르헨수비대에대한, 포클랜드를 탈환 하기 위한 消耗戰을 전개할수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군사전문가들은 『남대서양의 기상조건에 좌우될수밖에 없었던 35대의 해리어 함재기를 위한 착륙기지를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국군 상륙부대 있다.

영국군은 포트·스탠리와 포트·다윈을 차단하고 東포클랜드 해안지역에 기습공격및 상륙작전을전개, 아르헨軍을 혼란에 빠뜨리고 심리적인 불안감을 안겨주면서 포트·스탠리로 조여들어갈 전망이다. 우드워드사령관은 西포클랜드 남부의 폭스·베이에 주둔해있는 1천~1천

에 교두보를 확보한것은 가라앉지않는항공모함을확보한것이나마찬가지여서공군력증강에도큰몫을할것으로 보인다. 海·空의 공격에서 陸路진격까지 가능해질경우 포트·스탠리의탈환은시간문제가될것이지만 산·카를로스에서 동쪽으로 80㎞거리에 있는 포트·스탠리까지의 육로공격은 그리 쉽지만은 않을것이라는 관측이다. 【林鍾乾기자】

◇아센션島서 英軍 사격훈련 英國의 포클랜드기동함대에 합류하기 위해 南大西洋으로 향하던중 아센션섬에서 사격훈련을 하고있는 英國軍병사들. 이사진은 英국방성에의해 21일 런던에서 공개됐다. 【아센션島21日AP電=聯合】

英軍의 다음 作戰은…

포클랜드주둔 아르헨軍의 얼을 빼놓고 뒷문으로 처들어간 셈이다.

이작전은 영국의 전함및 수송함 20여척이 포클랜드해협 깊숙이 침투, 약1천명의 병력과함께 스코피온 輕戰車, 이동식 래피어 對空미사일, 105㎜야포등을 상륙시키는데 성공,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영국군은 분쟁발발이후 최대의 전과를 올린것으로 평가된다.

는 아르헨의주력부대가 주둔하고있는 포트·스탠리를 향해 당장 진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산·카를로스교두보에 병력을 증강하고 아르헨공군기의 저공습격에 대비할 레이다기지를 구축하는 한편 아르헨軍에 대한 점진적인 고립작전을 전개할것으로 보인다. 현재 포트·스탠리에는 장갑차와 야포로 무장한 4천5백여 명의 아르헨軍이 주둔하고

5백명의 아르헨軍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공격을할 계획이나 西포클랜드공격은 아르헨본토와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영국군으로서는 위험부담이 큰것으로 분석되고있다.

영국군이 東포클랜드공격에 주력할것으로 보는 이유도 포트·스탠리를 탈환하면 사실상 포클랜드를 탈환한것이나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을뿐아니라 아르헨 본토에서 발진하는 공군기들의 공격거리가 약1백60㎞ 더멀어 영국측으로서는 작전상으로 크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영국군이 산·카를로스

蘇軍 직접介入않는事態엔 友邦에 軍事力 제공 대응

레이건,「새戰略」을 승인

【워싱턴21日聯合】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이 세계의 어떤 곳에서든지 소련의 위협이나 소련의 지원을 받는 군사위협에 신속히 대처할수 있도록하는 새로운 전략을승인했다고 21일 윌리엄·클라크 대통령안보담당 보좌관이 밝혔다.

클라크보좌관은 이날 조지타운大 국제전략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소련이 전례없는 군비증강으로 현재전 세계에서 미국의 지극히 중요한 국익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소련의 공격을 저지할 태세가 되어있으며 이같은 억지노력이 실패할경우에는 소련의 공격을 패퇴시킬 준비태세도 돼있다고 강조했다.

클라크보좌관은 소련은 또 미국관리들은 미국의 새로운 전략은 레이건 대통령이 서명한뒤 21일 배포된 8페이지의 文書에 그 개요가 드러나 있다면서 이 전략은 지미·카터前미 대통령이 지지한 바 있는 이른바 「1.5전략 개념」 (하나의 전면전과 다른 하나의 국지전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전략개념)을 확대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産油量 상한선固守

OPEC石油相회의 폐막

【키토21日AP=聯合】 석유수출국기구(OPEC) 13개회원국 석유상들은 21일밤 『현행 OPEC산유량 상한선을 고수』하기로 합의했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2일간의 정례회의를 폐막했다.

이 성명은 OPEC석유상 회의가 『지난 3월20일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개최된 63차회의에서 설치된 각료급 시장동향감시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뒤 현행 OPEC산유량 상한선을 고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또 차기석유상 회의가 오는9월 나이지리아 수도 라고스에서 개최될것이라고 말했다.

빈회의에서 합의된 OPEC산유량의 공식상한은 하루 1천8백만배럴이나 사우디 아라비아가 그후 자국산유량을 하루 7백50만배럴에서 7백만배럴로 낮춤으로써 OPEC전체의 산유량상한은 현재 하루 1천7백50만배럴로 낮아졌다.

對臺灣 무기판매 美 영구中斷검토

【워싱턴21日AP=聯合】 레이건 행정부는 對대만무기판매를 영구히 중지시키는 문제를검토하고있다고 미국의 보수계 주간 휴먼·이벤트지가 21일 보도했다.

베이루트民兵隊본부 부근 大型폭탄 爆發

【베이루트21日AP=聯合】 베이루트소재의 좌익민병대가운데 가장 강력한 민병대본부에가까운 한 건물에서 21일 대형 폭탄이 폭발, 10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했다고 이 민병대본부가 밝혔다.

무라비툰으로 알려진 이 좌익민병대는 성명을 통해 무라비툰본부근에서 폭발한 이 폭탄은 50~60㎏의 것으로 8층 아파트건물의 2, 3층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전했다.

한편 이 폭파사고에 관한 첫 뉴스가 방송으로 보도된 직후 「레바논 해방기구」라고 자처한 한 반시리아·반팔레스타인 단체는 이 사고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주장했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英艦14척출동…해리어機도 猛襲

—英軍 포클랜드 上陸목격 아르헨記者 證言

포클랜드通信

陸海空 입체작전

○…포클랜드섬의 유일한 종군기자인 아르헨티나국영 TV·APC 타센세오기자는 산·카를로스의 격전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20일밤(현지시간) 산·카를로스해협북쪽에 있는 산·카를로스농장에서부터 영국군의 공격이 개시되었다. 이 작전에는 영국함정14척이 출동했다. 이함정에서 영국군이 상륙, 아르헨티나군과 교전중이다. 21일아침6시, 푸에르토·다윈도 함포사격을 받았다. 아침 8시에는 영국군 시·해리어전폭기 4대가 푸에르토·다윈의 군사기지를 공격했다. 지상에 있던 푸마헬리콥터 1대와 또다른 헬리콥터1대가 파괴됐다. 그러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1시간30분뒤인 상오9시30분에 아르헨티나 공군기가 산·카를로스해협에서 작전중인 영국함정 1척에 미사일을 명중시켰다. 상오10시, 페블섬에 주둔하고 있는 아르헨티나군이 對空미사일로 시·해리어기 1대를 명중시켜 격추시키고 조종사 1명을 생포했다. 이와 동시에 또다른 시·해리어기 1대를 격추시켰다. 하오 3시30분 시·해리어기 1대를 또 격추했다. 이날 하오에는 아르헨티나 공군기와 함재기들이 대거 공격에 나섰다. 한때는 최고 16대가 한번에 출격했다. 이 공격으로 프리기트함 2척을 격침시키고 다른 함정 3척에도 크게 피해를 입혔다. 하오5시에는 페블지역에서 아르헨티나 전폭기의 공격을 받은 영국프리기트함 1척이 화염에 싸여 침몰하고 있었다.

人口30명인 牧羊村 英軍이 교두보확보

○…포클랜드군도에 상륙한 영국군이 교두보를 확보한것으로 전해진 포트·샌·카를로스는 牧羊村이다. 평상시 인구는 어린이 명을 포함, 고작 30명이며 양10 이 3만1천마리에 이른다. 東포클랜드本島 서북쪽에 자리잡고 있는 이 牧羊村의 면적은 9만7천7백에이커.

反英구호·國歌합창 아르헨人 거리雲集

○…아르헨티나점령의 南大서양포클랜드군도에대해 英國군의 전격적 기습상륙작전이 감행된 21일 국내의 아르헨티나인들은 거리에 몰려들어 반영구호와 함께 國歌를 부르며 조국아르헨티나군에 성원을 보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수도가인 플로리다에서는 수백명의 군중들이 거리를 메운 가운데 라·나시온신문사에 게시된 속보를 읽고 있었으며, 일부는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들은 때때로 국가를 부르기도했다.

陸地엔유니온·재크 英니콜슨記者 目擊

○…『오늘밤 포클랜드상공에 유니온·재크가 또다시 휘날리고 있다』 『그들은 달빛속에 조용히 성공적으로 작전을수행했다』 영국 인디펜던트TV의 마이클·니콜슨기자는 21일밤 이같은 표현으로 영국군의 포클랜드탈환전투에 관한 최초의 목격기사를 보내왔다. 니콜슨기자는 『그들은 1천여명이였다. 최초의 상륙정이 현지시간으로 상오6시30분(한국시간 하오7시30분) 해변에 도달했다. 상륙대원들은 짙은 검은 색으로 … 얼굴을 위장했고 박격포, 중기관총, 대전차로킷으로 무장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상륙작전에는 4시간이 소요되었다고 니콜슨기자는 말했다.

아르헨 포島문제로 20世紀 첫戰爭치뤄

○…포클랜드영유권분쟁은 아르헨티나가 20세기들어 처음으로 치르는 전쟁이다. 그이전에 아르헨티나가 마지막으로 치른 주요전쟁은 1865년~70년사이 브라질·우루과이와 파라과이간의 3국동맹 싸움이었다.

아침에

마음의 傷處는 어떻게

糊塗와 慨嘆만으론 「再發」못막는다

朴東雲 〈本社論說委員〉

더이상의 「충격적」인 大型사건 속출은 이젠 질색이다. 그렇다고 덮어두자는것은 아니다. 억지로 덮어두다가는 가장 불편한 시각에 더크게 터지고만다.

정녕 필자가 말하고 싶은것은 病理현상이란 原因療法을 강구하지 않으면 언제든 재발할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오늘의충격」을 금어 부수려만 들지않는 한도로 중간 정리하는데 입각하여 「어제의 뿌리」를 캐보고 나아가서 「내일의 과제」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不信」이 문제다

李哲熙·張玲子부부의 이름으로 대표되는 巨額어음詐欺사건은 20일 검찰의 최종수사결과 발표로 중요한 고비를 넘긴 셈이 되었다. 같은날 집권 民正黨의 黨職개편이 있었고 다음날 11명의 장관급 인사이동을 수반한 대폭改閣이 단행된것이다. 民心一新과 國政刷新의 다짐이라고 보겠다. 하나 아직은 「颱風一過」를 간단히 결론짓기에는 時機尙早라는 느낌이다.

물론 刑事的訴追의 방향과 범위, 政界의 정치적·도의적책임의 한계는 이미 관측될수 있겠다. 또 국민경제에 미친 타격의 치유를위한 방안이 여러모로 강구된다고하며 사건 주변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문제도 진지하게 연구되는것으로 들린다. 그러나 거의 모든 국민이 입은 「마음의 상처」는 여하히 아물게 할것이며 나아가서 심화된 「不信」풍조는 어떻게 불식하여 새로운 信賴풍토를 정립할것인가 하는 벅찬 숙제가 남아있다. 재발 방지책과 더불어 이것이 수습의 근본문제이다.

검찰발표에의하면 「이 사건은 남다른 탐욕, 사치와 허영, 그리고 낭비벽있는 李哲熙·張玲子부부가 특수신분을 가진 사람의 비호를 받고 있는것처럼과시 또는 위장하면서 사채놀이, 증권투기 등에 몰두하다가 종국에는 파탄에 이르고 만 건국이래 최대의 사기사건」이라고 한다. 그리고 14개월 동안 張여인의 손을 거쳐간 어음액면 합계는 무려 6천4백4억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또 국내에서 불법, 부당하게 긁어모은 돈을 해외로 반출하여 날라가고자 日貨 5백만엔을 일본에 은닉하는 한편, 美貨 20만3천달러를 미국은행에 입금시켰고 따로 40만달러를 미국에 은닉해두었다고 한다. 79년10월말 부터 암달러상으로부터 美貨 40만달러, 日貨 8백만엔을 환전하여 집에 숨겨 두었다고 발표되기도 했다.

그리하여 사건의 윤곽이 알려질때부터 몇사람이라도 모여 앉기만하면 관심과 화제는 온통 그얘기에 쏠린다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일반 서민들이 고달픈 일에 땀을 흘리고, 알뜰주부들이 한푼 두푼을 아껴가며 가계부를 적고 있을적에, 다른 한편으로 한 女人이 위세있게 치맛바람을 날리며 사기행각으로 수천억을 주무르되 세금 한푼 안물고 방탕의 호화판생활을 누려왔다니 너무나 기막힌 대조였던 것이다. 충격과 분노와 허탈감 속에 유언비어가 퍼졌고 도무지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는 반영이 자자했다. 도대체 그러한 숫법이 어떻게 통용되었으며 「배후의 큰손」은 누구이고 과연 그같은 행각은 일개 사기천재의 예외적 탈선이었던가하는 궁금증이 만연되는 동안 「모두가 도둑」이라는 지극히 심각한 장탄식이 들려오는데 이르렀던 것이다. 이는 서민층 사회생활 기반의 동요마저 우려케 했다. 사회적 일탈행위의 죄의식 희박과 세대간의 균열,심화를 걱정하는 소리도 드물지 않았다. 분명히 그 엄청난 사건이 우리사회에 던진 파문과 試鍊의 본질은 「不信」이었다.

特權의식과 背景

하나 냉정히생각할적에 張女人사건은 현상적으로 우리사회에 지금껏 가셔지지 않은 「特權의식」과 「背景사상」에 편승하여 저질러진것으로 분석된다. 그같은 사건의 발생과 횡행을 가능케한 잠재의식과 부패의사회·경제적 조건의 뿌리가 깊고 넓다는데 대해 차근한 객관적 성찰이 필요할것으로 생각된다.

지난날 王朝時代의 여러 세기에 걸친 兩班·官人국가체제하에서는 特權的腐敗가 거의 불가피했다. 서민 위에 군림하는 양반관료들에게는 特權이 부여된 반면 봉급은 놀랄만큼 적었기 때문에 정직히 일하고 보수받다가는 체면과 생계의 유지가 불가능했다. 게다가 가족주의와 情實인사가 「德」으로 간주되는 분위기속에 가문의 누군가 벼슬을하면 친척, 인척·친지등 寄食者들이 파리떼처럼 모여와서 붙어먹고 살려고했던 것이다. 개중에 영리한축은 권세의배경을 업고 백성들에 대한 약탈과 농간을자행하여 어느사이엔가 큰 재산을 형성하곤했다.

특권관료 자신은 「明哲保身」의 무사안일주의로 상관에 적당히 뇌물을 바치면서 귀엽게 보이는 한편 세금의 여분과 뒤를 봐주는 사례금등을 휘쳐 하는 방법으로 「昇官發財」를 실천한 관료들이었다. 게다가 지방에 부임하는 관료들의 임기는 평균 3년이하로 매우 짧았다. 부임지에 대한 애착과 책임이 결여된 조건에서 빨리 긁어모아 서울의 권세가에 뇌물을 바치고 현대의 「도피성 이민」 대신 하루속히 귀경하려 했던 것이다.

수백년 동안 그러한 망국적 병폐에 젖어있다가 일제 식민지통치를 거쳐 8·15해방에 이은 정부수립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토양단의 불행을 이유삼아 민주주의가 제대로 토착화되지 못했고 구시대의 정치는 몹시 어두웠으며 「양복 입은 양반」들의 특권 행세는 구태의연했었다. 그러면서도 이 新生國에 선진국의 생활양식과 자본주의는 급격히 도입되었는데 이에 따른 호화판「展示效果」와 그것을 충족키 위한 특권적 부패가 횡행했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권력 앞에 오금을 못쓰는 비굴심리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다른한편 약삭빠른 일부사람들은 그러한 정신적 풍토에 편승하여 「배경」을 얻은 친부활동에 여념이 없었으며 또 구시대의 「근대화」 과정에서는 수단방법 불문의 「악바리 근성」도 상찬되는데 이르렀다. 바로 張女人이나 그의 선배격되는 사람들은 후자의 두드러진 실례로 부각된 셈이다.

한동안의 官主導型 경제성장의 급격한 추구로 말미암은 기업의 체질약화와 중산계층의 자주성 결여도 「특수층 비호」를 위장하는 「악바리」들의 사기행각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준 꼴로 되었다.

民主主義의 悲願

엄청난 충격은 정신차리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것이다. 호도와 미봉, 개탄과 시비등을 주로 맴돌다가는 또 그러한 부류의 사건이 주인공만 바뀌고 언제건 거듭 재발될 가능성이 짙다고 보지않을수 없다.

「진상 규명」도 필요하고 「문책인사」 내지 「인책 공세」도 부수되게마련이다. 「피해 보상」과 금융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촉구된다. 세무행정의 맹점,즉 큰돈의 내력과 흐름을 제대로 좇지 못했다는 「卓上行政」의 타성도 시정되어야할 것이다. 특권의식의 배제와 부당한압력이나 청탁에 굽혀않는 「의식개혁」이 강조되고 있으며 「기업인의 자세」 등도 논의되고있음을 본다.

하나 原因療法의 방향 설정은 「信賴」의 정립으로 집약된다. 특권적부패의 인습을 타파하고 온상을 제거하는 政治·經濟·社會風土의 體質改善이 아쉽다는 것이다. 참다운 民主主義·公明政治의 구현이 우리겨레의 悲願으로 남아있다.

메아리

頂上이 보인다

여성의 그늘에 가렸던 남자스포츠가 오랜만에 통쾌한 힘을 뽐내었다. 우리 남자배구가 세계2위 쿠바를 꺾은것이다. 울적하던 심정을다소나마 씻어낸 한줄기 소나기 같은 상쾌한 파이팅이다. 단순히 이겼다는 흥분보다 세계정상권의 강호를 9년만에 처음 눌렀다는데서 그것은 후련한 장거였다. 올해 아시아경기와 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으로 달리는 꿈이 부푼다. 남자구기 최초의 메달이 눈에 아른거리는듯 하다.

배구경기는 19세기말 미국에서 처음고안되었다. 영어의발리(VOLLEY)라는 단어는 일제사격, 또는 총탄의 연발을 뜻한다. 이 경기의 박진감을 잘 표현한것이다. 미국YMCA체육지도자 들랜은 농구의 과격성을 줄여 나이든 사람도 즐길수 있는 온화한 게임을 위해 배구를 만들었다. 가운데걸쳐진 네트는 정구에서 힌트를 얻었다고한다.

처음경기는 5인제로 열렸다. 그후 16인제로 늘었다가 9인제로 바뀌고 1962년 6인제가 정착되었다. 우리나라엔 YMCA를 통해 1928년께 들어왔다. 미국에서 시작, 먼저 아시아에서 인기를 얻었고 그후 유럽·남미등서 대단한 열풍을 일으켰다. 한국인 감독들이 진출하고 프로팀엔 우리 명선수들도 활약하고 있음은 너무 잘 알려진 일이다.

배구가 올림픽 종목으로 등장한것은 1964년 東京대회부터다. 그동안 패권은 소련이 거의 독점했고 남자팀의 경우 일본과 폴란드가 한차례씩 금메달을 차지했을 뿐이다.

쿠바배구가 태풍의 눈처럼 나타난것은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ㅡ. 이때 3위에 올라섰다. 작년 월드컵대회선 소련에이어 2위로 뛰었다. 한국 여자배구가 몬트리올에 나가 사상처음 동메달을 따낸 감격은 지금도 생생하다. 남자는 세계선수권 4위까지 치닫고 정상권을 쳐다보는데 그쳤다.

NHK盃 對쿠바전의 승리는 남자배구의 한 전기를 이룩한 뜻깊은 일이다. 9년동안에 걸쳐 당한 7連敗의 악몽이 이제야 깨끗이 가셨다. 「카리브해의 갈색고무」를 물리친 우리 배구는 확실히 정상을 보기 시작했다. 정말 정상이 보인다. 한발만 더 올려놓으면 세계배구는 우리 발에 놓일것이다. 어렵고 무거운 한걸음임에 틀림없다. 84년 올림픽에서 우리힘을 한번 과시해볼 만 하지 않은가.

海外토픽

日어린이 知能높아

★美보다11포인트나

일본어린이와 미국어린이를 상대로실시한 표준지능테스트(I·Q테스트)결과 일본어린이들이 평균 지능지수가 미국어린이들보다 무려11포인트나 높은사실이 밝혀졌다고 미국의 주간 내쉬지가 보도.

미국 뉴·유니버시티의 리처드·린박사가 지난81년 6세~16세 사이의일본과 미국 어린이 각각 1천1백명씩을 상대로 실시한 지능테스트결과 일본어린이들의 평균지수가 1백11포인트인데반해 미국어린이들은 겨우 1백포인트에 불과했다는것. 【뉴욕=AP】

集團섹스등 과제로

★學生들에 리포트提出케

미 캘리포니아주립대학의 롱비치분교에서 「성심리학」을 강의하고있는 배리·싱어라는 교수는 자신의 강의를 수강하고있는 복음주의교파신도학생들의 격렬한 항의에 따라 동성섹스·집단섹스·혼외정사등 그밖의 충격적인 실습연구과제를 더이상 학생들에게 부과할수없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고.

싱어교수는 ▲나체촌방문▲이혼재판 방청등의 실습과제를 부과한 다음 이에대한 리포트제출과 함께 분임토의를하도록 해왔는데 롱비치분교 교수위원회는 복음주의교파학생들의 압력을 받아 싱어교수의 강의를 검토하고있다는것. 【롱비치=AP】

고무젖꼭지에 毒物

★馬聯서檢出…생명위협

농부들이 아기들에게 먹이는 우유병의 젖꼭지에서 유독성화학물질인 니트로사민이 다량 검출돼 아기들의 생명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말레이지아의 페낭소비자협회가경고. 【페낭(말레이지아)=AP】

男性호르몬 중요

★思春期지능에 큰 영향

사춘기의 남성호르몬이 인간의 지적능력과 그들의 자질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미국의 의료연구진에 의해 처음으로 밝혀졌다. 20일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지에 발표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춘기에 남성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된 소년은 그렇지못한 소년보다 추리능력에서 앞서며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수학과기술분야 과목에서 일반적으로 우수한점수를 얻고있는 이유를 설명하는데도 도움이된다는 것이다. 【보스턴=AP】

한국일보 533·2361

홍익동문야유회 및 총회소집 공고

일시 : 1982년6월5일(토) 오전10시30분부터

장소 : Albion Hills Conservation (8km North of Bolton on Hwy 50)

행사 : 야외어린이사생대회, 사업보고및 사업계획

홍익대 동문회장 이근호

이대환 不動産

주택.건물.프라자.아파트 등이나 사업체를 사시거나 파실때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신용과 친절로 봉사하는 이대환 부동산회사에 맡겨 주십시오.

*버라이어티 스토어

①주매상 $8,000이상 건물(1베드룸)포함 D.P. $120,000 아스킹 $210,000

②주매상 $10,000이상 아스킹 $130,000 리스 : 4+5 옵숀10년

*도나스 샾

주매상 $9,500 렌트 $3,500 리스 : 3+5+5+5 아스킹 $310,000 다운페이 $150,000

*햄버거 샾 (새로 지은 MALL안에 있고 일요일쉼)

현재 주매상 $2,000 OPEN한지 3주됨. 좋은 리스에 몇개월내로 주매상 $7,000가능. 다운페이 $65,000 아스킹 $169,000

*드라이크리닝

주매상 $4,000(Cash &Carry) 아스킹 $79,000 주매상 $2,300 (Cash & Carry)

D LEE REAL ESTATE LTD

609 BLOOR ST. W B)535-1251 R)536-4250

보라매 창립총회

친애하는 공군전우 여러분 지난날의 보람의 광장을 싱싱하고 구김살 없는 대화의 광장이였읍니다.

우리 다시한번 좌석을 마련하여토론의 광장을 마련하고저하오니 보라매 회원여러분께선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회원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일 시 : 1982년6월5일 저녁7시30분

장 소 : 한인회관

안 건 : 회칙통과, 임원선정, 기타사항.

문의처 : 767-2241 윤여경
638-0656 정해문
251-9587 위정남
630-2400 이광한

보라매 발기총회

회장 윤여경

아파트「屋上탱크 食水」는… "죽은물"

鹽素부족…바닥에 앙금·벌레

防銹劑 대신 淸管劑만 投入

청소안해 水道틀면 흙탕물도

전국의 아파트주민들이 식수에 적합하지않은 물을 먹고있다。

대부분의 아파트와 연립주택에서는 수돗물을 옥상이나 지하탱크에 일단 저장했다가 각가정에 공급 하기때문에 물속의 잔존염소량이 기준치에 크게모자라 청도(淸度)가 떨어지며 물탱크의 저수조나 수도관의 부식을막고 스케일(찌꺼기)을 제거하기위해 사용하는 방청제(防銹劑) 대신 값싼 청관제(淸管劑·보일러청소용)를 많이쓰기때문에 인체에 해로울수가 있다는 것이다.

또 물탱크를 한번도 청소하지않은 경우가많아 탱크밑바닥에는 진흙과 먼지등이쌓여 부식하고있으며 경우에따라서는 각종벌레까지 기생하고 있다는것.

이때문에 아파트입주자들이 수도꼭지를틀면 시뻘건개흙물이나오거나 벌레까지 나오는 경우가있고 끓여먹어도 배앓이등하는 경우도 생긴다.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의경우 부패를 막기위해 염소를 투입, 잔류 염소량이 0·2~0·3PPM인 상태다.

그러나 이수돗물이 대형저수탱크에 저장되는 사이에 잔류염소가 줄어들면서 대장균바이러스등 각종세균이 크게 번식하게된다.

게다가 각 아파트들은 물탱크의 청소를 거의 하지않아 녹물이섞여 수돗물은「썩은물」이 되어버린다는것.

서울汝矣島 S아파트의 경우 아파트를 지은지 11년이 지났는데 관리자는『물탱크도 청소하느냐』고 물으면서 매분기마다 보일러관에만 청관제를 투입한다고 말했다.

서울江南區淸潭洞A아파트 주민들은 욕조에 물을 받으면 지저분한 앙금이 가라앉고 어떤때는 지렁이까지 나타나 관리사무소에 항의를하곤 하는데 이때마다 관리소측은『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수돗물 자체가 그렇다』고답변한다는것.

또 서울江東區蠶室洞 J아파트에 사는 金順英씨(38)는『수도꼭지를 틀때마다 붉은 녹물이 나와 흰빨래는 욕조에 받아놓은 윗물을 떠서 한다』고 했다.

정수업자들에 의하면 물탱크를 쓰는 공공주택의 경우 적절한 잔류염소량을 유지하기위해 염소를보강 투입해주고 방청제(防銹劑)를 넣어주는 한편 최소한 1년에 두번은 탱크청소를 해줘야한다는것.

그러나 각 아파트들은 관리비의 절감을 위해 저수조의 청소나 염소의 보강은 생각지도 못하고 방청제의투입도 제대로 않고있는 실정。

인산염이나 규산염으로 만들어지는 방청제는 kg당 5천~8천원이나 소다회、탄닌、아류산소다등으로 만드는 청관제는 kg당 가격이 1천8백원선。

일부아파트 관리업자들은 약품에대한 무지와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온수보일러에 청관제를 사용、아파트주민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독약을 마시는 셈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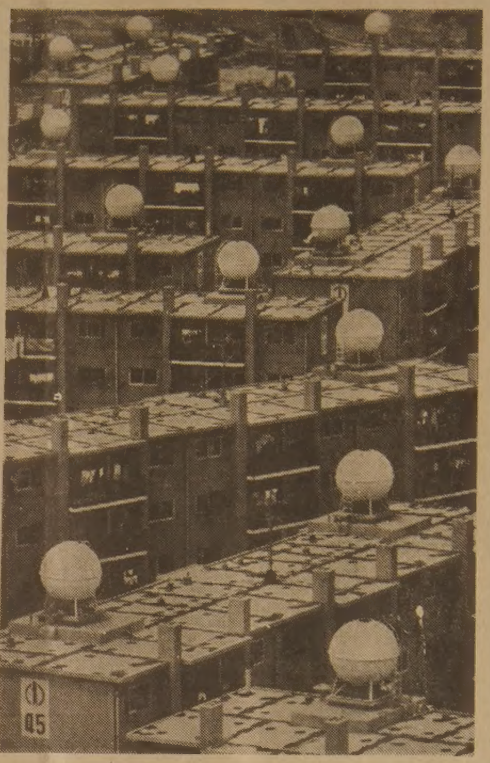
H정수회사의 한관계자는『아파트저수조 청소를 할 때마다 밑바닥에 개흙이 두텁게 깔려 각종 벌레가 우글거린다』고 말했다。

청관제를 쓸경우 물의수소이온농도가 허용기준치인 6·5PH를 넘어 10·5PH까지 나타나 강한 알칼리성을 나타내 이물을 오래 먹으면 탈모 피부질환 소화기장애등 부작용을 낳는다는것。

물탱크를 사용하는 일반주택의 경우도 염소의 재투입이나 저수조 청소를 제때하지않을경우 아파트주민과 다름없이「썩은물」을 마시게 된다。이에따라 요즘 인기를 끌고있는것이 정수기。서울정수기산업사의 金正씨(48)에 의하면 현재 서울시내에는 줄잡아 10만대이상의 가정용정수기가 보급돼있다는것。

우리나라 수돗물의 공급수자체가 토질성분이 많고 탁도가 높다는것은 잘 알려진 것이지만 이물이 물탱크속에서 더욱 변질된다는점은 섬뜩한일。

漢陽大 도시공학과 金元滿교수도『아파트 관리업자나 주민들이 식수부패에 너무 무관심 하다』고 지적하면서 하루빨리 아파트나 가정의 저수조와 배관청소에대한 인식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方畋俊기자】



◇썩은 물을 마신다 아파트 옥상에설지된 저수탱크들。수도물을 오랫동안 저장하기 때문에 잔류 염소량이 크게 모자란데다 청소를 하지않아「상한물」을 마시는 셈이다。【사진은 기사안의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都心성당의 20년 鐘치기

—聖公會 서울大聖堂 周大永씨의 하루

默想기도·無我경지서 打鐘

옛그소리 이젠騷音에 막혀

日스도 손안대고 6·25空襲도 모면한 奇蹟의종

서울시청 옆 성공회(聖公會) 서울대성당의 종치기 周大永씨(50·서울恩平區舊把撥洞56의27)는 지난 20년동안 도심의 한 복판으로 청아한 종소리를 흘려보내왔다.

周씨가 처음 종치기를맡은 지난 62년까지만해도 정동주변에 고층건물이 많지않아 종소리는 막힘이없이 도심의 창공으로 울려퍼졌으나 지금은 빌딩 사이사이를 비집듯이 파고들고있다.

종소리가 울려퍼지면 도심은 분득 잠시동안 정적에 잠기고 종루 위에 모여앉아있던 시청 비둘기들이 종소리에놀라 하늘로 날아오른다. 주변사무실에 근무하고있는 사람들에게 이 종소리는 정오의 점심시간과 하오6시의 퇴근시간을 알려주는 신호이기도하다.

周씨가 1분만 종을늦게치면 빌딩의 창문이 열리고 의아한 표정으로 성당쪽을 살피는 사람들도 있다.

周씨는 한평생을 종을치다 작고한 전임종치기 朴요셉씨의 뒤를이어 종치기일을 맡아 자신도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종을 지킬 각오이다. 周씨는『해가갈수록 마음을 사로잡은 종소리에 빠져 애착은 깊어만 간다』며 종치기로 세상을 마치겠다는것.

대성당 종소리는 정오와 하오6시외에 상오6시등 하루 3차례씩 울려 성직자와신도들에게는 예수강림을 축하하는 기도를 올리게 하는 것. 周씨에게는 종치는 작업이 바로 종교의식이다.

종을 치기 5분전에 추에 메달린 줄을잡고 성호를 그린뒤 묵상기도를 올린다.

이어 숨을 죽이고 조용히 눈을 감은채 추를 잡아당겼다 놓는다. 마치 종에 안겼다 사뿐히 내려앉는 소리없는 동작이어야 한다.

종소리를 내는데는 오래된 격식이 있다. 한번에 모두 18번의 종소리를 내는데 처음9번의 종소리는 정확히 3박자씩 끊어 3차례 울리고 나중9번은 한박자씩 계속해 내보낸다. 정확히 1분이면 이작업이 끝나지만 그는 자신이 종소리를 만들어 내기라도하듯 정성을 다하고 마지막종소리를 낼때는 어김없이 콧등에 작은 땀방울이 맺힌다.

종치기를 처음 시작한해 겨울에는 괘종시계를 잘못맞춰 놓아 밤12시에 종을쳐 다가 신부와 수녀들이 놀라 뛰쳐나오기도 했다.

周씨의 성당직급은 잡역부。그러나 그는 직급을 잊고있다. 자신이 종치기라는것자체에 자랑과 긍지를 느끼고있는것이다.

周씨가 20년을 지켜온 이종은 공식기록으로는 1926이란 숫자와 TAYLOR LOUGHBOROUGH라고 종표면에 쓰인것 외는 아무표시도 없지만 그는 아마도 대성당 종에 금(金)이 많이 들어있어 소리가 청아할것이라고 추측했다.

일제말기 일본인들이 놋그릇까지 모조리 뺏어갈때도 이종만은손대지못했다. 건물을 지을때부터 종을 넣은뒤 벽을 쌓아올려 성당을헐기전에는떼어갈수 없었다는것. 이 종은 6·25 전쟁의 와중에서도 신기하게도 그대로 남아 전해지고있다.

周씨에의하면 성당이 공습도 받아 포탄이 성당종 앞에 명중했으나 불발이돼 종은조금도 손상되지 않았다。신자들 사이에서는 이 종을「기적의종」이라고도 부르고있다.

영국에서 만들어진 이종은 들여올 때부터 관헌들이 관세를 무겁게 물려 가까스로 통관되었다.

이종의 아름다운 소리는 이미 널리 알려져 지방교회에서는 대성당 종소리를 녹음테이프에 담아 들려줌으로써종소리에대신하기도 한다고 周씨는 자랑했다.

周씨의 요즘 걱정은 다른게없다. 주위에 빌딩이 늘어나면서 4층높이의 종루가 자꾸만 왜소해진다는 것이다. 그 고운종소리가 빌딩벽에 부딪치고 자동차 소리에 묻혀버릴때 가장슬프다고했다.【朴珍烈기자】

◇서울성공회대성당의 종을 20년간 지켜온 周씨가 종을 닦아내고있다.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생사탕집 마당서 놀던 어린이 毒蛇에 물려 숨져

求禮 鳳東서

【光州】뱀집마당에서 놀던 4세어린이가 주인의 관리소홀로 우리를빠져나온 독사에 물려 숨졌다.

지난20일 낮12시30분께 全南求禮郡求禮邑鳳東里 姜點植씨(34)의 생사탕집 마당에서놀던 이웃 朴喜俊씨(33)의 차남 珍連군(4)이 뱀우리에서 나온 독사에발목을 물려 全南大부속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22일아침숨졌다.

숨진珍連군은 이날 뱀집주인 姜씨의 아들昌善군(4)과 놀던중 허술하게 방치해둔 독사우리에서 빠져나온독사에게 오른쪽발목을 물렸다는것.

경찰은 생사탕집주인 姜씨를 과실치사혐의로 입건했다.【聯】

石油저장탱크 爆發 人夫추락 숨져

【蔚山】21일하오6시께 경남蔚山市夫谷洞665 蔚山석유공장의 원료저장탱크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정동호씨(41·蔚山市也音洞369)가 탱크가 폭발하는 바람에 3m아래 땅에 떨어져 그자리에서 숨졌다.

정씨는 이날 산소절단기로 탱크에 연결된 배관을 잘라내는 작업을하다가 파이프속에 남아있던 인화성가스에인화, 탱크가 폭발해 변을 당했다.【聯】

大邱 성남國校불 放火여부등捜査

【大邱】21일하오9시50분께 大邱市西區內唐5洞 성남국교(교장 정태봉·57) 4학년2반교실에서 원인모를 불이나 담임교사용 책상1개와 캐비닛1개, 교실천장5평가량을 태우고 긴급출동한 소방차에 의해 15분만에 진화됐다.【聯】

「學林사건」 4명 석방 23명도 1審파기判決

서울高法 抗訴審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崔鍾泳부장판사)는 22일세칭「學林사건」의 李泰馥피고인(30·전광민출판사대표)등 26명에 대한 국가보안법등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열고 李피고인에게 1심대로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던 朴泰鉉피고인(26·서울大경제학과3년)과 징역2년과집행유예4년으로 실형을 선고받지않은 柳海佑피고인(32·공원)등 2명에대해서만 1심판결을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머지23명에 대해서는 법률적용이 잘못됐거나 형량이 무겁고 사실관계를잘 못판단했다는등의 이유로 1심판결을파기, 재판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申澈永(31·서울大공대졸) 朴泰蓮(25·전YH노조사무장) 金丙究(35·연합노조경북지부장) 魯淑英피고인(26·서울여대4년제적)등 4명에게 집행유예3~4년씩을 선고, 이날 석방했다。

관련피고인들의 선고형량은 다음과 같다。

◇전국민주노동연맹관련자 ▲李泰馥(30)∥무기 ▲申澈永(31·도시산업선교회간사)∥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4년 ▲金鐵洙(25·서울大신문학과4년휴학)∥〃2년6월 〃2년6월 ▲梁承朝(30·경동산업공원)∥〃 ▲朴泰蓮(25·여·전YH노조사무장)∥〃1년 〃3년 ▲柳海佑(32·삼원섬유공원)∥〃2년 〃4년 ▲金丙久(35·연합노조慶北지부장)∥〃 ▲宋秉春(26·서울大 사대교육과4년휴학)∥〃2년 〃2년 ▲宋泳仁(26·서울大 사대교육과3년)∥〃 〃 ▲魯淑榮(26·여·서울大 가정과 4년제적)∥〃집행유예4년 ▲崔圭曄(28·高大독문과3년제적)∥〃 〃 ▲嚴桂雄(23·高大경제과4년 제적)∥〃 〃 ▲鄭京連(25·高大정외과졸업)∥〃2년6월 〃2년6월 ▲朴泰鉉(26·서울大 경제과3년)∥무죄

◇전국민주학생연맹관련자 ▲李善根(26·서울大경제과3년)∥〃7년 〃7년 ▲朴文植(23·서울大 경제과4년제적)∥〃5년 〃5년 ▲李德熙(22·서울大대학원 미생물학과1년)∥〃3년 〃3년 ▲洪英姬(23·여·梨大사회학과졸업)∥〃2년6월 〃2년6월 ▲尹聖九(20·서울大수학과3년)∥〃2년 〃2년 ▲閔丙植(23·成大무역과4년)∥〃 〃 ▲金昌基(24·外大영어과4년)∥〃1년6월 ▲崔敏煥(22·成大사학과3년)∥〃 ▲金鎭哲(22·서울大물리교육과4년)∥〃 ▲孫炯皦(22·延大수학과3년) 〃 ▲李鍾球(22·東國大 교육과3년)∥〃10월

同伴자살 企圖

精薄兒 아들悲觀

아들이 정신박약아인것을 비관한 어머니가 동반자살을 기도, 아들은 숨지고 어머니는 중태에빠졌다.

지난 20일 새벽3시께 서울東大門區里門洞257의21 金哲씨(40·상업)집 안방에서 金씨의 부인 曺三子씨(37)가 방안에 연탄불을피워놓고 둘째아들 尙燻군(8·청량국교1년)을 데리고 동반자살을기도, 신음중인것을 친정어머니 閔규호씨(71)가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尙燻군은 숨지고 曺씨도중태에 빠졌다.

閔씨에 의하면 딸 曺씨가 지난19일에도 아들과함께 극약을먹고 자살을 기도하다사전에 발견돼 미수에그쳤는데 이날 사위 金씨가 지방으로 출장을 가 마음이 안놓여 전화를 했으나 응답이없어 황급히 찾아가 보니 모자가 연탄가스에 중독돼 신음하고있었다는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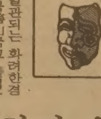
曺씨는 아들 尙燻군이 태어날때부터 자폐증정신박약아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동네아이들의 놀림을 받아온것을 비관해 왔다는것.

경찰은 曺씨를 살인혐의로 입건했다.

노동 立志傳

鄭漢株 新任 노동부長官

國卒학력이 오히려 돋뵈는 "양파"



21일 자리를 물러난 전 국세청장 金壽鶴씨는 國卒의 학력 때문에 매스컴이 자주 인용하는 입지전의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 金씨의 기록이 같은날 깨졌다. 노총위원장이던 鄭漢株씨(54·사진)가 國卒 학력만으로 장관의 자리에 오른 것이다. 制憲시절을 빼고 그 학력으로 장관이된 사람은 아마 鄭장관이 처음일듯하다.

부산 부두노조 조직부장, 전국부두노조 사무국장, 한국노총 사무총장, 전국부두노조위원장, 한국노총부위원장, 한국노총위원장, 노동부장관。「노동」으로 일관되는 화려한경력사이에「42년 경북善山국교 졸업」이란 학력이 눈길을 끌뿐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國卒이라고 상상도 못한다. 그의 해박한 노동관계지식, 구수한 변설, 정부고관이나 기업체의 장들과「근로자의권익」을 따질때의 설득력있는 모습은 박사학위를딴 사람보다도 크게 보인단다.

그는 집이 가난해 국민학교만을 졸업, 독학으로 3종교원시험에 합격, 4년동안 교단에 섰고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려했다.

그러나 그연배의 많은 다른사람들과 마찬가지로 6·25가 그를「노동운동」의 기수로 전환시켰다. 부산으로 피난, 부두노조에 우연히가담했고 노임계약등에 합의하다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면서 평생을 노동자를 위해 바치게된다.

「변신」과「권모술수」가 판을 치온 지난날의 우리 노조계에서 그는「타협의명수」로 8백만 근로자의 대변자로 성장했고 이젠 노동행정의 총책이됐다.

소탈한것같으면서도 아주 깐깐한 성격의 그를 흔히들「양파」라고부른다. 벗겨도 벗겨도 똑같은 모습이지만 속은 알수없다는 뜻이다. 그는 그만큼 찬사와 비난이 함께있어왔다.

그러한 그가 되기위해 그는 정말 믿기어려울만큼 피나는 노력을해왔고 집념을 불태워왔다고도 한다.

못배운 한을 풀기위해 항상 그는 책을 들고있었고 延大와 서울大경영대학원을 수료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부족을 메워왔다.

이제 鄭장관은「학벌」이 판치는 우리사회에서 많이 공부하지못했어도 자기노력과 집념만있으면『장관이 될수있다』는 희망을 8백만근로자에게 심어주게될것이다.【盧基昌기자】

축
일간지발행 1주년기념
○교민사회의 목탁인 한국일보·토론토
○정의를 위해 불굴의 투지로 더욱 힘차게 뻗어나가길 하나님께 기원합니다.
서머나감리교회 담임목사 박준하 및 교인일동

포클랜드戰爭 그衝擊과 敎訓을 본다

한국일보 (특집판)

戰爭代價 너무비싸 軍縮 필요성을實證

엄청난 戰費·무서운 破壞力 「첫經驗」
自制잃은 核武器개발 弱小國 자극
軍費지출에도 限界 國民經濟 파탄

南美대륙의 南端 케이프혼 동북쪽으로부터 7백70㎞ 떨어진 포클랜드군도는 두달전만해도 1천8백명의 주민이 양을 치며 살던 평화의 섬이었다. 양모를 생산하는 외에 이렇다할 산업도 없이 국제사회에서 격리됐던 南대서양한쪽 구석의 이작은 섬이 이제는 세계사에 이름을 남기게 됐다.

유럽을중심으로미국, 일본등 선진각국에서는 요즘 핵무기 반대운동이 불길처럼 번져가고 있다. 6월초에 잇달아 열리는 선진국 경제정상회담과 유엔군비축소특별총회에서는 세계평화가 논의 된다. 미국과 소련은 소련의 아프간침공이후 처음으로 전략무기감축협상(START)을 시작하기로 한것으로 전해진다.

영국·아르헨티나 간의 포클랜드전쟁은 이런 속에서 일어났다. 세계의 눈이 집중된 이 전투에서 가장 큰 이슈의 하나로 꼽힌것은 정밀유도무기(PGM)의위력적 파괴능력이다. 원자력잠수함이 實戰에 등장한것도 이 전투가 처음이지만 이밖에도 아르헨티나 순양함 헤네랄·벨그라노호를 격침한 유도어뢰 킹·피쉬, 영국기동함대의 주력 전폭기 해리어, 영국 최신형 구축함 셰필드, 그것을 침몰시킨 프랑스製 전자미사일 엑소세등이 모두 처음으로 실전에 사용됐다.

이가운데서도 엑소세는 경탄할만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20만달러(약1억4천만원)짜리 미사일 한방으로 5천만달러(3백50억원)짜리 군함을파괴한 엑소세의 위력은 현대海戰의 양상을 일변시켰다고까지 평가되고있다. 국방에 위협을 느끼고있는 약소국가들이 이런 정밀전자유도무기에 군침을 흘리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엑소세가 액수로 3백50배의 武力을 無力化했다하더라도 그한방의 값은 역시 대단한 규모다. 또 미사일은 아무리 우수한 성능을 갖고있더라도 이에 걸맞는 발사수단을 갖추지 못하면 충분히 효력을 발휘할수없다. 셰필드를 격침할때 엑소세를 발사한것은 전투직전 아르헨티나가 프랑스에서 수입한 초음속 함상전투기 쉬페르·에탕다르였다. 1대값이 1천2백만달러(84억원) 나되는 비싼 비행기다.

영국이 이번 전투에 파견한 기동함대의 戰費는 10억파운드(약1조원)를 넘을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여기에 전투로 상실한 군함과 전투기의 값을 합치면 아르헨티나와 인접한 우루과이의 국민총생산과 맞먹는 액수가 되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사비용은 이렇게 비싸다. 이때문에 지나친 군비확장은 국가경제에 압박을 주어 인플레를 유발하고 국민생활은 그만큼 고달퍼지게 마련이다.

평화에 불가결의 요소인 안전을 확보하기위해 각국은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 현대 세계질서 속에서 국가의 생존은 충분한 방위수단을 갖느냐 못갖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나 무기의 축적, 특히 핵무기의개발은 인류의 장래에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멸의 위험을 주고있다.

현재 美蘇를 중심으로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는 지구전체를 20번이상 반복해서 파괴할수있는 힘을 갖고있는것으로 알려져있다. 45억의 세계인구를 20번 전멸시킬수있다는 얘기다. 전면핵전쟁이 아닌 제한戰域 핵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도 민간인과 군인의 사상자 발생비율이 13대1이 될것이라는 것이 유엔보고서의 지적이다. 일단 핵전쟁이 발발하면 그것이 아무리 제한된것이라 하더라도 非전투원의 대량살육을 피할수없다는 설명이다. 反核운동이 확산되고 유엔이 군축특별총회를 열게된것도 이때문이다.

강대국간에 군비의 감축이 이루어져야하는 이유는 軍備확장이 오히려 군사력의 質을 떨어뜨리고있다는 데서도 찾을수 있다. 군사비용을 무한정 늘릴수없다고할때 군비의확장은 보급수준의 低下를 가져올수밖에 없다. 확장에따른 인력보충문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런 군비축소의 불가피성에도 불구하고 각국이 이를 현실화하지 못하는것은 강대국의 군사력균형과 국가주의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세계질서속에서 東西강대국지도자들의 도덕성에 自國의안보를 맡길수없는 현실때문이다.

포클랜드전쟁의 원인을 국가주의에서 찾을수 있다면 진정한군비축소의 가능성은 脫국가주의에 있는지 모른다.

영국은 기동함대를 파견하면서 전쟁에 의해서든, 협상에의해서든 분쟁의 결말은 『섬주민의 의사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된것이어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웠다.

포클랜드주민 1천8백명은 모두 영국계다. 포클랜드의 포트스탠리 공항을 영국군이 처음 폭격했을때 이중 17명이 죽었다. 그러나 이들이 폭탄에맞아죽으면서 『大英帝國만세』를외쳤다는 소리는 들리지않는다. 【朴贊式기자】

◇때아닌砲聲에 겁먹은 포클랜드의 英國系 어린이들 포클랜드섬 학교 초급반에서 수업을 받는 영국국적의 어린이들. 이섬의 특수한 역사적사실을 배운적이없는 어린이들은 때아닌 포성에놀라 겁먹은 표정들을 하고있다.

◇헤이그說得에 맞선 갈티에리 아르헨大統領 고개돌린 헤이그美국무장관과 설득하는 갈티에리 아르헨티나 대통령과의회담. 갈티에리는 4월중순열렸던 이회담에서 『장군대 장군으로 말합시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나왔다고한다.

日本列島로 飛火한 防衛논쟁

포클랜드海戰 「미사일방위」와 「海上戰力증강」맞서

"巨艦·巨砲戰시대 지났다" "海上서 敵의 상륙막아야"

포클랜드海戰을 분석한 일본의 군사전문가들은 유도미사일의 위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거함·거포주의의 해상방위전략을 보완해야 한다고지적했다.

더우기 이 유도미사일과 신예전투기가 모두 선진국들의 무기판매에 의해 국경을 넘어 공산진영에까지 들어갈수 있다는 점에서 나토를 비롯한 자유진영의 방위체제에 헛점이 드러났음을 입증했다고 보고있다.

일본의 방위전문가인 호리모도씨(堀元美·군사평론지주필)는 구식순양함인 아르헨티나의 벨그라노호가 영국해군의 신예핵잠수함에 의해 격침된것은 이해할수 있으나 최신장비를 갖춘 영국의 셰필드구축함이 프랑스제의 엑소세미사일 한방으로 침몰된사실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對空방위면에서도 세계제일급인 신예구축함이 미사일공격으로 침몰된것은 역시 對空방위면에 헛점이 있음을 드러낸 것이며 이에따른 보완책이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호리모도씨는 또한 엑소세미사일이 수면 7~10m이내에 떠서 날기때문에 구축함의 레이더가 이를포착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어째서 아르헨티나의 전투기가 공격하려는 것을 미리 발견하지 못했는가. 만일 조기경보기 E2C가 떠 있었다면 이러한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번의 실수는 영국의 구축함이 함재 레이더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일어난실수이며 앞으로 각국은 조기경보태세에 의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사평론가 세끼노(關野英夫)씨는 포클랜드해전은 미사일을 본격적으로 사용한 근대해전으로서 세계의 모든나라가 미사일의 위력을 실감하고이에대한 대응책에 부심하게 됐다고 전망했다.

일본의 방위청도 예외는 아니다.

포클랜드해전에서 보여준 미사일의 위력에따라해상자위대의 증강보완책에 부심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포클랜드해전을 계기로 스즈끼수상과 방위청간에 새로운방위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처음으로 실전에 사용된 미사일과 신형어뢰의 위력이 근대해전의 특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스즈끼수상은 그의 지론인 『고슴도치미사일방위망』설치를다시 주장하고 나섰다.

스즈끼수상은 많은 돈을 들여 함정과항공기들을 사들이는 방위증강보다는 일본전역에 고슴도치처럼 미사일을 설치, 방위망을 구성하는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방위청의 군지휘부는 국방을 미사일등 특정병기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협천만한 생각이라고 반대하고 나섰다.

포클랜드 해전은 제2차대전이후 본격적인 첫근대해전으로 훈련에서는 얻을수없는 군사적인 귀중한자료를 얻게되어 세계각국은 이처럼 해상전략의 보완책을 서두르고있다.

스즈끼 수상은 미사일의 위력을 들어『이젠 거함·거포주의는 지났으며 고슴도치처럼 미사일망을 설치하는 고슴도치방위론이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스즈끼수상이 고슴도치방위론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비싼 호위함과 구축함, 해잠함등 해상전력을 증강하기보다는 값이 적게드는 미사일을 장비함으로써 효율적인 방위증강을 이룩하자는데 그목적이 있다.

그러나 방위청은『이와같은 미사일중시의 고슴도치 방위론은 적을본토에까지 일단 상륙시킬 가능성이 많으며 헛점이 생기면 방위가 없는 고슴도치가될 염려가 있다』고 이를 정면으로 반대했다.

일본국내에서만 미사일을 장비한 고슴도치식방위만으로는 첫째 스즈끼수상이 美日정상회담에서제시한 해상 1천마일의 수송로의 방위마저 완수할수없다고 비판했다.

방위청은 적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상에서 적을 섬멸해야하고 해상에서 적을 섬멸하기 위해서는 항공모함이나 구축함, 해잠함, 조기경보기등 각종장비가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시오다(鹽田) 방위국장은 스즈끼수상에게 「고슴도치 방위론」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면서 『조기경보체제를 구성키위해서 E2C의 도입과 제공권의 확보를 위해 요격전투기 F15의 보강, 적의 함정을 저지하는 미사일호위함, 잠수함등의 장비가 시급히 요청된다』고 진언했다.

포클랜드해전은 이처럼 스즈끼수상의 고슴도치식방위체제의 주장과 이를 반대하는 제복측과의 장기적인 방위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東京=宋李彬특파원】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流星의 賦 <389>

李炳注 作 李友範 畵

勇名 天下에 떨치다 ⑦

한참을 생각에 잠겨 있다가 홍계남이 무릎을 탁치고 벌떡 일어섰다.

『출동준비다, 서둘러라』

조인식이 물었다.

『어떻게 된겁니까』

『놈들의 의도를 알았다. 우리들을 포위한 것은 우리들과 싸우려는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을 이곳에 묶어 두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렇다면 놈들의 의도는 빤한 것이 아닌가. 놈들은 안성을 공격할 작정이다』

계남의 이말에 조인식, 신복, 기타 모두 수긍했다.

순식간에 출동준비를 서두르게 되었다.

계남이 명령을 내렸다.

신복을 조인식을 시켜 적 우측을 습격하여 적의 병력을 그곳에 모이도록 해놓고 홍계남이 적의 좌측 포위망을 뚫어 안성으로 달려갈 작정이라고 작전계획을 아울러 설명했다.

밤중에 시작한 공격이 새벽까지 가도 결판이 나질않았는데, 해 돋을 무렵에야 홍계남이 혈로를 열어 안성을 향해 달렸다.

이때의 안성의 사정은 다음과 같았다.

안성 의병의 총대장 홍자수는 죽산부에 주둔하고 있는 복도정치군(福島正則軍)이 출동했다는 소식을 듣고, 공격 측 희망의 수비란 원칙에 따라 생질 이덕남을 선봉으로 군을 발하여 죽산에 선제공격을 감행하려고 했다.

제1차의 충돌은 좌찬현에서 있었다.

이때 이덕남의 활약은 실로 눈부셨다. 혼자만으로적병 수십명을 쳐 죽였다. 홍자수도 이에 못지 않게 분투하여 상당한 전과를 올렸다.

적은 후퇴하기 시작했다.

『이기회에 적을 섬멸해 버리자』

고 홍자수는 이덕남의 의견을 받아들여 왜적들을 추격하기로 하고 고개를 넘었다. 왜적들이 도망치는 행동은 신속했다. 자수와 덕남의 추격도 신속했다.

그런데 적의 후퇴작전은 위장전술이었다. 홍자수를 사로잡기위한 위계(僞計)였던 것이다. 어느덧 홍자수와 이덕남은 단병(短兵) 30여명과 함께 적의 포위망 속에 들어 있었다.

적은 일방에선 후속부대와 홍자수 사이를 차단하고 점차로 포위망을 압축해 왔다. 종전에 적은 이런 대담한 전법을 쓰지 못했다. 언제나 배후에 홍계남의 군대를 의식하고 위협을 느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금번은 달랐다. 임화군이 홍계남의 세를 묶어 놓았다는 암호를 받아놓고 있었다. 그런만큼 적은 여유있는 작전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자수의 오산이 있었다. 자수는 죽산부 공격을 시작하기에 앞서 계남의 진영에 미리 통보를 했었다. 그러니 자수와 덕남이 죽산부에 가까와질 무렵엔 홍계남이 출동하여 적의 배면을 찌를것으로 예상하고, 그 예상을 바탕으로 섬멸전으로 들어간 것이었는데, 적의 포위망은 압축되는 일방으로 조금도 누그러지는 기미가 없었다. 이상하다고 느꼈다.

지금쯤 계남군의 함성이 어딘가에서 들려와야 하는 것인데 그런 기미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방향을 안성으로 하여 혈로를 찾아 뛰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이덕남의 말이었지만 그래도 계남의 내원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자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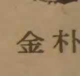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고 했다.

주간女性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18>

朴婉緒 作 金光培 畵



明暗 53

은표주박을 꼬투리로 쉽게 명랑해진 오목이가 인재는 신기할뿐더러 다행스러웠다. 그가 조만간 마무리져야 할 일이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밀려난 것같아 위기를 모면한 것처럼 은근히 안도의 한숨마저 쉬었다.

물론 그가 책임 지고 마무리져야할 일을 마냥 이룰수 있다고 생각하고있는건 아니었다. 그렇지만 지금으로선 아무런 각오도 서있지 않은 상태였다.

그 일을 모른다고 부정하거나 전적으로 오목이 책임인양 무책임할수 있을만큼 뻔뻔스럽지도 못한 주제에 어느만큼 책임을 져야겠다는 한계도 없었고 각오도 돼있지 않았다.

오목이나 오목이의 가족이 세게 나와서 그일로 그에게 중대한 책임을 덮어씌우면별수없이 쓰더라도, 그렇지않을 경우는 유야무야로 넘어가는게 상책이라는 정도의 편리하고 유동적인 각오를 하고 있을뿐이었다.

한편 오목이는 은표주박을 곰곰 들여다보면서 따뜻하고 부드러운게 온몸으로 퍼지는것 같았다. 가족, 돌잔치, 때때옷, 엄마의 젖가슴, 아빠의 수염, 아이들의 웃음소리, 어른들의 꾸중, 형제간의 우애…. 그녀의 삶의 시초가 그런 평범한 가정의 행복으로부터 시작됐으리란 상상은 늘 그녀를 감동시켰다.

오목이는 그런 감동에 대한 탐닉이 지나쳐 종종 상상과 체험을 구별하지못했다. 인재한테 한 그녀의 어릴 적 이야기도 하고나선 아차싶었지만 한 때는 거짓말이라는걸 거의 의식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인재를 좋아하는 마음이 점점 더 걷잡을수 없어지고 인재도 자기를 좋아하기를 갈망하고부터는 거짓말도 한층 세련되고 늘어났다.

그러나 그 일이 있고부터 그녀는 이미 해버린 거짓말을 취소하길 벼르고있었다. 그녀는 인재의 성실성을 바라고 있었고 그것을 요구하기 위해선 자기가 먼저 거짓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다. 오목의 생각은 백번 옳은 생각이었지만 옳은 생각이라고 해서 실행하기가 쉬운 건 아니었다.

인재가 그 목걸이에 대해 관심을 가진것은 그녀가 솔직할 수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그녀는 이야기했어야 옳았다. 자기는 실은 최 오목이 아니라 오목이임을. 오목이도 실은 불확실하므로 그녀의 정체와 관계되는 실물은 은표주박이 유일한 것임을.

그 은표주박이 소중한 까닭은 대물림의 골동품이기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망각된 시간으로부터 자신의 정체를 발굴해낼수 있는 단 하나의 단서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야 옳았다.

그녀가 인재네 회사앞에서 퇴근하는 시간을 지키고있던 것도 오늘이야말로 거짓말을 취소하고 모든 것을 밝히자는 각오에서였다. 그러나 어느틈에 그녀는 또 한통치의 거짓말을 보태고 말았다.

그녀는 인재를 기다리며 20층 빌딩을 올려다볼때마다 느낀 아찔한 낭떠러지의 의미를 조금씩 알수가 있었다. 그 낭떠러지로 몸을 던지는 무서운 결단력 없이는 진실을 밝히기가 참으로 어렵다는걸 느끼고 절망했다.

목걸이 끝에 달린 걸 스르 놓고 인재를 쳐다보는 오목이는 다시 망막하고 보잘것 없어 보였다.

같은 식당안에서 오목이의 가슴에 늘어진 은표주박을바라보고있는 또 하나의 눈이 있었다. 수지였다. 『오누이의 집』으로 찾아갔다 못만나고 재수학원으로 찾아갔다 못만나고나서는 다시는 오목이를 찾을 생각도 안했으니 5、6년만에 처음만나는셈이었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 · 2361

한국일보 · 토론토 축 일간 1주년 기념

○이민의 문화적 · 사회적 자아(IdentitY)를밝혀가는 신문

○이민의 정치적 · 경제적 권익을 가꾸어가는 신문

○한국 · 캐나다 관계의 교량이 되는 신문

언제나 앞서가는 기사 · 광고의 한국일보 · 토론토!

한국일보

⊙킴스카메라 및트로피 김 춘 탁 534—1085

⊙미씨사가 오토 · 콜리존 정 창 헌 275—3131

⊙김종조종합보험 김 종 조 535—7200

한국일보
특집판
取材팀
◇外信部
朴賢式 차장대우
林鍾乾 기자
朴承喆 〃
兪興根 〃
崔海雲 〃
朴來富 〃
李炳圭 〃
◇특파원
부에노스아이레스 李梓昇
東京 宋孝彬

구경거리「작은戰爭」이 世界秩序흔드는「섬뜩한戰爭」으로

◇英軍空襲 불타는 스탠리空港 영국군의 첫공습으로 검은연기를 내뿜고있는 푸에르토 아르헨티노(포트스탠리) 공항의 저유시설。

擴戰 또 擴戰…포클랜드衝擊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李梓昇특파원

영국과 아르헨티나 쌍방 어느쪽도 적극적으로 싸울 의사가 없이 시작된 포클랜드전쟁。남대서양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은 발발 8주째 접어 들면서 작은 制限전쟁으로 그쳐주기를 바라던 염원을 외면하고 충격效果가 전세계에 파급되는 장기전으로 더욱 뚜렷하게 기울고 있다。원래 싸울의사가 없었다 치더라도 일단 수백명의 사상자가 난이상 영국과 아르헨티나는 국민과 동맹국 그리고 쌍방이 다같이 싫어하는 소련까지도 주시하는 가운데 전쟁을 치러야하는 난처한 국면에 접어들었다。유엔을 무대로 벌어진 협상이 아주 깨져버린듯한 이제 이 작은 전쟁의 向方을 결정하는 動因이 지극히 우발적인 交戰이나 사고에서 비롯되어 악화될 불확실성이 더욱 짙어지고있다。2차대전이후 同盟질서조차 뒤흔든 이전쟁은 또하나 잊혀졌던 대륙 라틴아메리카에 유럽등 외부세력의 영향력을 배제하자는 남미판新몬로주의가 胎動하는 역사적 싯점에서있다。이것은 전쟁이든 협상이든 이번사태가 끝난뒤 영원히 남는 상처가 될것이다。『영국이 전쟁을원한다면 아르헨티나는 라틴아메리카를 대표해서 백기를 들지않겠다』고갈티에리아르헨티나대통령은 지난15일 멕시코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선언했다。

◇神父와 장군 지난4월 포클랜드 출전을 앞두고 마지막미사에 참석한 말비나스 사령부의 고위참모 솔리스장군이 성찬을 받고있다。

◇復舊작업나선 아르헨軍 아르헨티나 병사들이 영국군의공습이 끝난후 포트스탠리공항주변서 피해복구작업을 하고있다。

◇新聞속보판앞의 市民들 부에노스아이레스市의 번화가인 플로리다가에 자리잡은 라·나시온紙 속보판앞에 운집한 시민들。

南美版「新몬로주의」胎動
유럽勢에 반발…脫美 결속
작은動因·우발로도 交戰가능성 보여줘

이날아마디오·후이괄리 아르헨티나 국방장관은『지난 4·2말비나스(포클랜드) 점령은 實利를 회복한 것이다。식민주의는 구시대 유물이다。미국이 식민주의에 동조하는데 경악했다』고 미국에대한 실망을 나타냈다。아르헨티나는 영국과의 말비나스 분쟁을「식민지세력에 대한 항쟁」으로 비약시키고 있으며 식민세력 잔재구축에 앞장서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기수의 이미지를 부상시키려 하고 있다。

특히 같은 미주대륙에 있으면서 동맹관계를 유지해온 미국이 결국 영국을 지지한데 대해「배신자」라는 단정을 내리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발간되는 주요일간지 라나시온紙 편집국장 피멜·오라시오·에우가스씨는『오히려 영국보다 미국에 더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의 이 말은 아르헨티나국민들, 나아가서는 라틴아메리카 국민들의 감정을 대변한다 해도 무리가 아니다。

그는『미국과 라틴아메리카와의 관계는 이제 옛날과는 다를 것이다』라고 말했다。라틴아메리카 10개국들은 아르헨티나와 영국과의 대결에서 지역블록으로서의 단결을 과시했다。서로 인접국사이에 내분이 內燃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세력에 대해서는 감도가 다르나 하나같이 저항을 보였다。

서방언론들은 이들의 단결이『입으로만의 지원』에 그치고 있다고 구체적지원행동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것은 과소평가인것 같다。

헤이그 美국무장관이지적했듯이 스페인어권으로서의 공동문화의식、영어권인美·英에 대한 반발의식、또한 국가형성과정에서 역사적 공통점등 역사적 문화적 연대감이 바탕이되어 지역적 연대의식이뚜렷이작용한것이다。

라틴아메리카 가운데서도 아르헨티나와 특별히 긴밀한 관계에있는 페루나 볼리비아 같은 나라는 볼리적으로도 상당히 깊이 관련되어있다。

페루는 아르헨티나와는 형제국의관계。아르헨티나를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시킨 산마르틴이 역시 페루도 독립시켰다。

산마르틴이 두나라에서 모두 국부로 추앙되고 있다。또한 인접국인 칠레와도 하나는 북쪽에서、다른 하나는 남쪽에서 국경분쟁의 문제를 같이 안고있다。

지난 12일 페루의수도 리마의 산마르틴광장에서는 학생、기업인、정당인등 10여만명이 모여 집회를 갖고『해적을 말비나스에서 몰아내자』고 영국의「침략」을 규탄하는 데모를 벌였다。

또한 페루군부 제1인자인 국방상 루시이스·시스네로스는 이 데모가있은지 며칠뒤인 지난16일『영국이 말비나스를 다시 무력점령하기에 앞서 이를고쳐 생각하도록 아르헨티나에전차、항공기、병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全페루軍은 단기간내에 아르헨티나를 전면지원할 태세가 돼있다고 큰 소리 쳤다。

특히 시스네로스장군은 아르헨티나 태생일뿐아니라 갈티에리 대통령과는 아르헨티나육군사관학교 동기생으로서 개인적인 친교도 두텁다。

페루는 라틴아메리카에서 A·B·C3국에 이어 제4위의 군사대국。공군은 신예 미라지기 24대를 포함하여 1백여대의 전폭기를 보유하고 있고 해군은 잠수함 2척등 함정20여척、육군은 대공미사일 SA2、SA3등 현대적장비를 갖추고있다。아직 공식적인 확인은 없으나 페루의 일부 신예전투기가 아르헨티나에 와있다는 것은 알려진 비밀이다。

또한 영국령이었던 가이아나와 영토분쟁을 하고있는 베네수엘라도 적극지원에 나서고있다。

아르헨티나주재대사 호루헬·다겔은19일『석유난에 부닥치고있는 아르헨티나에 1일 1만배럴의 석유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곤잘로·가르시아·데스·필로스 관방장관은 지난16일부터 관리、정치인、노조대표들로 구성된 대규모사절단을 이끌고 스페인、네덜란드、프랑스、벨기에、이탈리아、바티칸등 유럽7개국을 순방하면서 아르헨티나의 말비나스 점령동기를 설명하는 설득외교에 나서고 있다。

이들의 對유럽 대행외교행각은 EC의 對아르헨티나경제조치를 해제하는데 목표를두고있다。

뿐만아니라 지난8일밤에는 수도카라카스에서 영국의「침공」에 항의하는 상징으로서 1분동안 부분적인 등화관제훈련을 실시、아르헨티나와의 단결을 과시했다。

이날 하오9시15분에 실시한 이훈련에서 모든 차량들은 경적을 울리고 교회들은 종소리를 울렸다。

한편 아르헨티나와는 경쟁관계에 있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유일하게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브라질도 아르헨티나에 잠수함 초계정 ENB 3대를 판매했으며 조아오·휘거이레도 대통령은 미국방문에서 레이건 대통령과회담、아르헨티나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엘리오·자리멜·마도스 공군사령관은『브라질 공군은 우방지원을 위해 즉각적으로 호응할 태세가 돼있다』고 아르헨티나지원을 시사했다。

심지어 아르헨티나와는 전통적으로 국경 분쟁으로 숙적관계에있는 칠레도 남극탐험선을 말비나스의아르헨티나부상병수송에 사용토록 제공하겠다고 제의、아르헨티나가 [illegible]을씻고 이를 받아들였다。

칠레는 또한 영국해군에게 기지를 제공치 않겠다고 확약했다。

라틴아메리카국가들은 모두가 아르헨티나와 영국의 대결에서 아르헨티나편에 선것이다。

아르헨티나국방상 아마데오·후리굴리는『아르헨티나는 도서이건 대륙에서건 영국의 어떤 공격에 대해서도 이를 격퇴할수 있으므로 현단계에서는 외부원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자주방위의 원칙을 밝혔다。

아르헨티나는 포클랜드분규를 국제전으로 확대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현단계에서는 정신적지원에 만족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는 아르헨티나와 영국의 포클랜드 분규를 계기로 지역적 공동체의 유대를 굳힌 셈이다。

특히 미주대륙의 종주국인 미국의 사에 역행해서 독자적으로 이러한 지역적 결속을 보였다는것이 주목된다。

이번 포클랜드사태는 라틴아메리카가 미국으로부터의 독자노선을 걷게하는 전환점을 마련해 준 셈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미국은 이제 소련과 마찬가지로 不信의 대상이 된것이다。

寫眞、아르헨서緊急空輸

이사진들은 포클랜드 전쟁을 취재하기위해 지난5월7일부터 아르헨티나에 특파되어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중심으로 취재활동을 벌이고있는 본사 李梓昇특파원이 아르헨티나 TELAM통신으로부터 입수한 사진과 직접 촬영한 사진을 긴급공수한것이다。

운전교습
SOUTHERN ONTARIO DRIVING SCHOOL SPECIAL
10시간의 개인운전교습 집으로나 사무실로 모시러갑니다.
ONLY $129.00
무료신청서, 무료핸드북, 무료필기시험에 필요한것.
한번 와 보십시요. ※조금의 영어가 필요함.
월－금 오전10시－오후5시
2489 BLOOR ST. W. SUT210
(BLOOR & JANE 써브웨이)
766－4441, 766－4644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36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매일공연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내고향통닭집
냉면 칼국수 전문
658½ BLOOR ST. W.
☎ : 537－0432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등
MASA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977-9519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15% 할인
⊙전자 CASH REGISTER
⊙각종 전기전자 계산기
⊙각종타자기
⊙금고, 책상, 케비넷
김 성 수
교포경력(TORONTO 15년 경력)
분납가능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JAGUAR 종합보험.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자동차보험.
＊비지네스보험.
＊집보험.
＊생명, 상해보험등.
⊙영어를 할수있는 한국학생 (파타임) 구합니다.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

忠南선두、全南·서울 猛추격

熱戰5일 오늘폐막

마지막球技서 판가름

◇럭비중학부 준결승전。충남 진잠중과 전남 남평중이 접전을 벌이고있다。【大田=소년체전취재반】

11회 소년체전 (제4일)

【大田=소년체전취재반】88년 서울올림픽 주역을 발굴하는 제11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5일간의 열전을 끝내고 오늘(23일) 하오 6시 大田공설운동장 메인스타디움서 폐회식을 갖고 폐막된다。메달에의한 종합시상제도를 처음채택한 이번 소년체전은 22일 구기종목의 준결승전을 거행、피크를 이루었다。

축구…全南종고국교·慶南합포 争覇

체조…國校여자部서 忠南 단체우승

폐막을 하루앞둔 22일현재 忠南·全南·서울·釜山등이 종합우승을 놓고 치열한혼전을 벌이고있다。육상에서가장많은 메달을획득、첫날부터 선두를달려온 忠南은 금11·은12·銅15개로 선두를 고수했으나 全南과 서울이종반에 맹렬한추격을 벌이고있다。全南은 金11·銀7·銅7개로 2위를 달리고있으며、중하위권에서 맴돌던 서울이 궁도와 태권도에서 많은 메달을따내 金11·銀1·銅5개로 종합순위3위를 마크하고있다。

구기서 강한 서울은 최종일경기에서 많은 金메달을추가할것으로 예상된다。

축구 국교부 준결승에서 경남 합포는 전북 전주동을 4—0으로 대파했고 전남종고는 대구 반야월과0—0으로 비긴후 승부킥에서4—3으로 이겨 경남합포와 우승을 다투게되었다。배구 여중부 준결승서는 전남 송원여중이 대구 경북여중을 2—0으로 제압했으며 경남마산제일은 서울 일신여중에2—1로 역전승、결승에나갔다。농구 여중부 준결승서 전남 송원여중은 경남 마산여중을 49—35로제압、결승에 올랐다。

충남은 체조 여국부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개인종합에서 大田宣花국교의 韓景任은 36。90점으로 개인우승을 차지했다。전날 규정종목에서 1위에 나섰던 李光敏(대전신화)은 이날 자유종목에서 실수가많아 2위로 떨어졌다。

한편 이날끝난 테니스 남중부결승서 서울선발은 경남선발을 3—1로꺾고 우승했으며 여중부서는 경기선발이 전북선발을 3—0으로 완파하고 우승했다。

◇메달 집계 (22일현재)

	금	은	동
①충남	11	12	15
②전남	11	7	7
③서울	11	1	5
④부산	7	8	7
⑤충북	7	7	11
⑥경남	7	6	5
⑦전북	4	9	5
⑧경북	3	7	9
⑨경기	4	4	5
⑩인천	3	4	3
⑪대구	0	3	5
⑫강원	0	1	4
⑬제주	0	0	2

<銀2개또는銅4개를金1개로>

李德姬、4強못올라 西獨오픈 테니스

【西獨베를린21日聯=聯】한국의 李德姬는 21일 西베를린에서 열린 西獨여자오픈테니스선수권대회 단식준준결승에서 西獨의 베티나·붕게에게 6—0、6—1로 패해 4강진출의 기회를 놓쳤다。

李德姬는 美國의 빌리·진·킹과 英國의 조·더리에게 세트스코어 2—1로 역전승을 거두고 8강이 겨루는 준준결승에 진출했었다。

스타 大田宣化국교 韓景任양

거의 完壁한 水準 "꼭 코마네치 처럼"

22일 끝난 체조에서「코마네치」가 나타났다。여국부 개인 종합1위를 차지한 韓景任(12)。大田宣化국민교 6학년생인 韓은 忠南체조가 86년 아시아경기대회와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발굴해낸 요정。

1m23、22㎏의 韓은 이날 마루운동에서 8·9、뜀틀에서 6·30、평행봉에서 9·45、평균대에서 9·20점을 따내 총계 36·90점을 마크했다。(자유종목 73·30점) 전날 규정종목에서 2위(36·40)를 한 韓은 국민학교 수준에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묘기를 보여주었다。

전날 규정종목에서 최고성적(37·30점)을올린 李先民(宣化국6년)은 뜀틀 평행봉 평균대에서 실수、종합2위(73·30점)로 떨어졌다。

지난4월 KBS배쟁탈전 마루운동에서 가장좋은 성적을 올렸던 韓은 코마네치처럼 몸이작으나 동작이 유연하고 침착하다。

4개부문중 2단 평행봉을 가장 잘하는 韓은 유치원 다닐때 코마네치가 올림픽에서 3관왕이 된것을 보고 체조를 시작했다고말했다。

1년3개월째 韓을 지도하고있는 朴炳佑교사(30)는『경임이는 구르기 앞돌기 도약등 기본기가 잘되어있다。그러나 마루운동 기술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大田高 육상 선수였다는 아버지 韓玫熙씨(46·약사)의 2남2녀중 둘째。【소년체전취재반】

한국남자排球、쿠바·日 連破

세계選手權에 青信號

손에 땀쥔 2시간50분

NHK배구 한국、쿠바制壓이어 日도눌러 3—2

◇이번 NHK 대회서 두각을 나타낸 장신 李鍾敬。

【東京=宋孝彬특파원】땀나는 2시간50분 이었다。한국남자배구 대표팀은 22일하오 日本 요꼬하마에서 벌어진 NHK컵 국제배구대회 2차전서 日本을 3—2로 제압、전날 강호 쿠바를 3—1로 물리친 여세를몰고 2연승을 기록、우승이 확실시 되고있다。한국 남자대표팀은 지난 58년 아시안게임(日本)에서 日本에 스트레이트로 패배한이래 22전8승14패로 통산전적에서 뒤지고 있었으나 70년대말 부터는 한국의 승률이 앞서고있다。

한국은 이날 日本에 고전했으나 전력면서 日本에 한단계 위임을 입증했다。

불꽃튀는 접전은 제4세트 종반。8—7로 앞서던 한국은 미쓰하시·스기모도 등에게 좌우강타와 블로킹포인트를 허용、8—10、10—10、10—13으로 리드를 빼앗겼다。한국의 최장신이며 구력4년의 李鍾敬이 블로킹으로 서브권을 뺏어온뒤 또다시블로킹으로 1득점、文湧冠과교대해 들어온 韓壯錫이 블로킹 포인트를 얻어 한국은 12—13까지 추격했다。

日本의 노장 이와다는 왼쪽공격으로 1점을 얻었으나 공격실책으로 1실점、한국은 13—14로 바짝 추격했다。

이후 양팀은 치열한 블로킹싸움으로 10차례나 서브권을 주고받는 난타전을 전개했으나 세터 李範柱의 긴토스를 姜斗泰의 공격미스로 13—15、제4세트를 내주고 세트스코어 2—2 타이를기록했다。

제1·2세트를 손쉽게 따낸뒤 연속 두세트를 잃은 한국은 쫓끼는입장이돼 초조해졌고 日本은 상승무드。「제4세트를 얻는팀이 이긴다」는 배구계의 통념탓인지 마지막 세트에 들어가기 전까지만해도 한국은 역전패할것처럼 보였다。그러나 기우였다。姜斗泰·張允昌·李鍾敬등 오픈공격수들이 타점높은 강타를 퍼붓고 블로킹이 되살아나 한국은 14—1로 크게 앞섰다。日本은 방심한 한국의 허를찔러 4—14까지 추격했으나 李鍾敬의 블로킹으로 쓰러졌다。

이날 한국은 손쉽게 이길수도 있었으나 제3세트중반 이후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 고전했으며 세터 李範柱는 긴장한 탓인지 지나치게 왼쪽으로 공을 올려 配球의 다양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文湧冠·柳重卓의 중앙속공 姜斗泰·張允昌·李鍾敬의 오픈공격은 수준급이었으며 특히 신예 李鍾敬의 성장은 놀라왔다。

한국은 23일 日本주니어팀과 최종3차전을 갖는다。

◇韓·日 배구역대전적

	대회	한	일
①	58년 아시안게임(동경)	0	3
②	62 〃 (자카르타)	1	3
③	64 동경올림픽	0	3
④	66 아시안게임(방콕)	0	3
⑤	67 동경U대회	1	3
⑥	70 이태리U대회	3	2
⑦	70 아시안게임(방콕)	0	3
⑧	74 〃 (테헤란)	1	3
⑨	75 아시아선수권(호주)	1	3
⑩	77 불가리아U대회	3	1
⑪	78 아시안게임(방콕)	1	3
⑫	78 이태리세계선수권	1	3
⑬	79 멕시코U대회	3	0
⑭	79 아시아선수권(바레인)	3	2
⑮	80 정기전1차(서울)	0	3
⑯	〃 〃 2차(〃)	3	1
⑰	80 올림픽예선(불가리아)	3	2
⑱	81 루마니아U대회	2	3
⑲	81 정기전1차(日本)	1	3
⑳	81 〃 2차	1	3
㉑	81 슈퍼스타컵대회	3	1
㉒	82 NHK대회	3	2

◇제2일전적

대한		대일
15		4
13		15
8	3—2	15
15		13
15		9

日서 날아온 NHK盃勝戰譜

젊음 交替·秘法의強訓 주효

뜻밖에 카리브海 大魚 낚아

姜斗泰정점으로 李鍾敬·李範柱등 파워 날로向上

한국이「카리브海의 갈색 대어」를 낚았다。한국남자배구는 지난 9년간쿠바에게 7連敗의 치욕을당해오다가 드디어 통한을풀었다。쿠바는 지난해 월드컵서 蘇聯에 이어 2위를 차지한 세계 정상급팀。이번 NHK컵서 쿠바를 침몰시킨것은 한국남자배구의 경사일뿐아니라 세계선수권(10월·아르헨티나)·아시안게임(11월·인도)을 앞두고 청신호를 밝혀준것이다。

한국 남자 대표팀은 지난해 12월 유럽전지훈련을 다녀온뒤姜斗泰를정점으로 한 젊은 선수들로 대폭 교체、신장면에서도 성장을 보였다。

이번 쿠바 격파로 대표팀의 세대교체는 일단 성공적인것으로 평가된다。

NHK컵대회에 출전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쿠바를 잡으리라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베스트6에 한 두군데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이다。세터와 레프트 공격 한자리에 항상 신경이 쓰였다。70년대 후반 한국대표팀을 이끌어온 세터 金浩哲의 이탈리아 진출로 李範柱(금성통신)가 이 자리를 계승했지만『金에는 미흡하다』는 평을 들어왔다。그러나 李의기량은 날이갈수록 향상됐다。

지난해 韓日정기전을 스타트로 유럽대회에서 주전세터로 뛸때만해도 李의 표정은 항상 굳어있었다。그러나 이번 NHK컵대회서는 자신감을 갖고 경기에 임했으며 金浩哲처럼 상대 블로킹을 따돌리는 재치있는 토스웍을보였다。

대표팀최장신인 李鍾敬도 이제 키값을한다。慶北師大附高 1년때 처음배구를 시작、구력 4년인 李는 레프트 공격수로서의위치를 굳혀가고 있다。

주장 姜斗泰·왼손잡이 강타자 張允昌·중앙 속공수 文湧冠·柳重卓등도 지공속적인 성장을보이고있다。

이번 대표팀은 연습량이 풍부했다。지난해 연말부터 대표팀을 맡은 李圭昭감독·崔鍾玉코치의 훈련방법은 다양하고 특이했다。

수비훈련을 보면 70㎝높이로 고무줄을 친다。선수들은 이보다 1m 뒤쪽에서 엎드린 자세로있다가고무줄 앞쪽으로 떨어지는공을 받기위해 꾸부린자세로 재빠르게 고무줄 밑을통과한뒤 리시브한다。이같은 훈련은 수비자세를 최대한 낮게 유지시켜준다。처음 얼마동안 선수들은 이훈련을 받은뒤 제대로 허리를 펴지못했지만 이제는 적응이됐다。

배구공의 외피를 벗기면 안에있던 고무튜브가 크게부풀어 오른다。이 부풀어오른 고무공과 보통공이 수시로바닥에 던져지고 선수들도 이것을받아 올린다。볼이 떨어지는 속도가 각각 다른것에 대비한 훈련이다。

상대블로킹을 이용하는 공격훈련도 특이하다。네트 건너편에 50~60㎝의 단을 세우고 그 위에 두명의 블로커가 대기한다。공격수들은 이들의 블로킹을 따돌려야한다。西歐의 장신블로킹에 대비한연습이다。

하오 연습에 들어가기전에는「스트레칭」(손발의 관절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운동)을 30분 이상 계속한다。요가 비슷한 이 체조는 온 몸의 관절을 풀어주며 부상을 예방한다。

한국대표팀은 최대한의 강훈련과 머리를 짜낸 트레이닝을 받고있다。

그러나 쿠바를 꺾었다고해서 결코 자만해서는 안된다。지난해 7월 유니버시아드대회서 한국은 난적 中共을 꺾었으나 日本대학대표팀에 참패당한 쓰디쓴 경험이 있다。

자만하지 않고 정진하자。【金仁益기자】

프로야구

OB、單獨선두

三星에 8회초 大逆轉劇

작은 고추 李根植의 매서운 2타점 동점타를 발판으로 OB베어스가 8회초 대역전극을 펼쳐 三星 라이언즈를 8—6으로 누르고 16승7패로 단독선두를 고수했다。

OB는 22일 大邱에서 벌어진경기서 6—3으로 뒤지던 8회초1死후 연속 2포볼과 申慶植의 좌전안타로 만루찬스를마련、吉凡鉉의 밀어내기 포볼로 1점을얻고 李洪範을 대신해나온 핀치히터李根植이 중전 2타점 동점타를때리고 잇달아8번 鄭赫謙의결승희생플라이와 9번 具千書의 중전안타로 2점을추가、8—6으로 게임을 뒤집었다。

MBC 靑龍은 서울운동장에서 숙적 해태 타이거스의 수비불안을 틈타 1회초 집중3안타로 2점을 선제하는 한편 河基龍의 역투로8—0으로 완봉승13승10패로 3위를 지켰다。MBC에게만은 강세를 보였던 해태는 뜻밖에 내외야 수비 불안으로 자멸했다。손이 다친 金鍾模를 대신해 3루수로 나선 崔榮祚는 1회초 MBC선두타자 金仁植의 땅볼을 내야안타로 살려 주었고 포수 金戊勳은 두번이나 도루를 허용하고 패스트볼로 위기를 자초했고 金一權은 李鍾道의 좌전안타를 잡은후 홈송구를 포기、2루주자의 홈인을허용했다。

롯데는 처음 釜山홈구장마운드에 오른 金文熙의 역투와 4번 金用熙의 4회말 2점 홈런등으로 三美슈퍼스타즈에 7—1로 대승했다。

◇전기중간 순위 (22일 현재)

팀	승	패	승률
① OB	16	7	·696
② 삼성	15	10	·600
③ MBC	13	10	·565
④ 롯데	10	12	·455
⑤ 해태	9	13	·409
⑥ 삼미	6	17	·261

◆22일 전적

◆서울

										계
해태	0	0	0	0	0	0	0	×	×	×
MBC	2	0	0	0	0	1	1	×	×	×

◆부산

										계
삼미	1	0	0	0	0	0	0	0	0	1
롯데	1	1	0	4	0	0	0	1	×	7

▲홈런=鄭文▒(2회)金用熙(4회·2점·이상롯데)

◆대구

										계
OB	0	1	0	1	0	0	1	5	0	8
삼성	0	1	3	0	0	2	0	0	0	6

▲홈런=朴貞煥(2회)孫祥得(3회·2점·이상삼성)

종교서관
535—1920
서적판매및 대여
일반서적
다량입하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714 BLOOR ST. W.

한국일보

533·2361

교 회 안 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 : 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244—28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 : 30 오후 2 : 00 영어설교 오후1 : 30 금요저녁 9 : 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시민교회	조심관	오후예배 1 : 00 성경공부 2 : 30	148 Thornridge Dr. Thornhill	266—4918
대한교회	조남유	주일오후 2시	3819 Bloor St. W.	[illegible]
순복음토론토	이필주	주일오후 2 : 00 금요기도 8 : 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동부한인장로	홍순관	주일대예배11 : 30 수요예배오후 7 : 30 영어예배 오전10 : 30	251 Christie St.	530—1142 530—1143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 6 : 30 주일 낮 12 : 00 주일오후 2 : 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제일교회	장희선	주일낮 11시 수요예배 8시 주일찬양예배7시 주일새벽기도 6시	135 Briscoe St.E.	686—6302 전화선교 439—6331
런던한인교회	신용규	주일오전11 : 00 금요기도 밤10시 주일오후 2 : 00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성도교회	김동진 정춘수	주일오후 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반석교회	왕세주	주일오후 1 : 30 성경공부 2 : 40 토요기도 밤7시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 7 : 00 주일오후 1 : 00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장로	김경진	주일오후 1 : 30 수요오후 7 : 00	7 Gretna Ave.(Victoria Pk.& Lawrence)	281—5706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환	주일오후 2시 수요새벽5 : 30 중고등영어 오후1시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선교교회		주일오후 1 : 00	1 Greenland Rd.	444—8002
서머나감리교회	박준하 김옥희	주일영어 1 : 00 주일성경 1 : 00 주일예배 2 : 00 수요예배 7 : 30	75 Canterbury Place Willowdale, Ont.	751—3611 752—9860
대한수도원	조원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평일기도 오후2시 토요집회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Tor.	698—5363
베다니성결교회	김요환	주일오후 1시 성경공부 주일 오후3시	2799 Weston Rd.	248—9709 248—1653
성산교회	계화삼	주일오후 1 : 30 4 : 00 수요오후 7 : 30	65 Mayall Ave. Downsview	977—5202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 : 00 금요오후 8 : 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 : 00 금요일 오후6시 성경공부	1272 Weston Rd.	242—4964 665—2866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 : 30 수요저녁 7 : 30 금요저녁10 : 30	126 O'connor Dr. at Pape Ave.	423—9880 423—8400 (복음다이알)
오순절장로교회	장세택	주일오전11 : 00 금요오후 8 : 00 주일오후 4 : 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일요오후 2 : 3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 감리교회	여웅순	주일오후 1 : 30 금요예배 7 : 30	2385 Warden Ave.	444—33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웅출	주일오후 1 : 30 금요오후 7 : 30	963 Pharmacy Ave.	755—9766 755—1528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 : 30 토요오전 9 : 30 11 : 00	255 Finch Ave. W.	630—4284
한인중앙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 : 00 성경공부 2 : 20 금요오후 9 : 00	502 Bathurst	274—5305 전화설교
천주교회	고종옥	주일오후 1 : 00 토요오후 5 : 30	83 Power St.Tor.	863—0415
침례교회	홍신웅	주일오후 2 : 00 금요오후 8 : 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 : 00 주일오후 4 : 30 금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281—7772
키치너 워터루 한인교회		주일오후 1 : 30	54 Queen St. 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 : 00 (영어예배) 주일오후 2 : 00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 : 00, 수요오후 7 : 30 T. V. 예배 8 : 30~9 : 00A. M. CH. 79	1183 Davenport Rd.	535—6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 : 30 예배 3 : 00 주일학교 3 : 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국인의
화초 도(소)매상
가장 저렴한 가격
SHERBOURN써브웨이옆
☎ : 923-9948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한국인의 도매상
한 인
연합상사
25-27 Rangemore Rd.
☎ : 251-6578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 669-5784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전기시설 · 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전화: 270-3118 오 현 구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6시이후 전화요망

식 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식 품 점

한 밭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전화: 248-513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삼 복 식 품 주 7일 영업,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생 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가내봉제 상세한 문의 바람
전화 : 530-1046. 7 p.m~10 p.m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히팅·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 행 사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안내광고(CLASSIFIED)는 저렴한 비용으로
놀라운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전화 : (416)533-2361~4

운전학교

AGINCOURT DRIVING SCHOOL
스카브로 지역은 집에서 데려가고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16년간의 경험으로서 특히 신경예민하신 분들과 연세 많으신분들께 성심 성의껏 지도해드립니다. 한번 수업에 Parking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배우실수 있으며 전문가로부터 운전에 관한 모든 필요한 지식을 배우시게 됩니다.
Call Ask Vlado, 291-8304 (오후 4:00-밤 11:00)

오행근운전학교
전화 : 423-3035

아스트라 운전학교 ☎ : 769-1960(B)
743-3377
761 Jane St. Mr. Eastman

이삿짐및 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 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크로바인쇄소
3351 Lakeshore Blvd. W.
전화 : 251-9587(B) 252-7491(R) 위 정 남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자동차수리

Midwest Auto Body Shop 전화 : 751-9280
▲완전 바디 숍. 신용본위
▲260 Midwest Rd. Unit 8 (미드랜드×로렌스) 임 종 민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 533-2157

AL'S ESSO Service
Mechanics Repair (All Maker & Model)
Tune-up, Break Repair, Electronic Repair,
Tire & Battery (한국분에게는 염가로 친절봉사해드림)
400 Front St. W.(C.N.Tower 옆)
전화 : 596-6902. Mechanic 최 양호

자동차 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HUMBERVIEW MOTORS
G.M. (시보레·올스모빌)
전화 : (B) 236-1011, (R) 763-1155 손 명철

매매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장 의 사

장 의 사 (R.S. 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 E. (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영정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전화:745-6792(Mr.우)

학 교

씨알한국인학교 (교장 유희자)
전화 : 960-0074

Y어린이학교 (김창열)
전화 : 536-1166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보약제와 신경통약이 다량 수입되었읍니다.
교민들에게 특별 염가 제공코져 합니다.
전화문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 (465 DUNDAS W.)
전화 : 596-8407, 596-7373 최 호 권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531-7505 서 춘봉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서 울 한 의 원
한의사 김 장 석
전화 : 1-212-762-4694 (New York, U. S. A.)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전화 : 530-0522 531-4165(R)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전 C. A. FIRM ACCOUNTANT
4750 Jane St. Suite No.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정장우 회계사 (PAUL C. CHENG)중국인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625 Dufferin St. Ste.407 (B)636-3616 (R)690-7153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45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매·도매함
16 Osler St.
☎ : 762-7255, 7256
762-2700

구 인

Store Helper 구함.
Full Time 주 40시간
남자로서 유경험자에 한함.
오후 3시—9시까지 (주6일)
전화: 368—8147 김.

직원모집
당사는 통역회사로 아래사항에 해당한 유능한 인재를 찾읍니다. 원하시는 분은 P.O.Box 323 Station "L"로 이력서를 보내주십시요.
자격: 1)중국어·한국어·영어를 해독하시고 번역하실수 있는분
2)번역경험(상기 3개국어)이 5년이상 있으신분

경험있는 여자자켓 만드실 Full Time 재봉사 구함
(주급 : $220부터~)
전화 : 368—2819 (Mr. Wong)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535—0708 박 명 진

피아노 레슨 학생구함
경력 : A.R.C.T. U Of T B.M. Performance
전화 : 531—4579 신 수명

캐셔 또는 매니저 구함(남·녀관계 없음)
57 Willows Lane Pickering, Mr.Kim
꼭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숙소 제공해 줄수 있음)

식품점에서 일할 젊은이 구함.(40세 미만)
◉정직하고 양심적인 분
◉성실하고 부지런한 분
◉자동차 면허 있는 분
대우는 능력에 따라 우대함. 가급적 직접 내방바람.
삼복식품

의류수선 (복식 양재, 또는 봉제하청)
동업자 구함 — 기능자에 한해서 남녀 불문
상세문의 오후6시~9시 전화: 530—1046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좋은장소에
지령이잡이 하실 분. 높은 수입 보장함.
전화 : 466—1461

밤 11시 이후 Hotel에서 청소하실분
구함. 전화: 425—1836

◉주말에 일하실 남자학생 (파트타임)
시간: (금·토·일)
◉젊은 여자 Full Time 일하실분 구함
(월·토)
전화: 762—1572, 769—9854

그리운 철우여 연락하라, 만나서 술한잔하세!
해병 187기 이성규가 해병 188기 정경태를 찾음.
우리는 1968~69년에 걸쳐 월남 호이안에서 같이 싸웠음.
연락처 : 57 Octavia Street,
San Francisco, Ca. 94102
전화 : 1—415—552—1438

입주하셔서 애기 둘(한살반, 네살)
보아 주실분 구함.(Steeles × Bathurst)
전화 : 889—4574(B) 225—7143(R)

경험있는 미용사(헬퍼) 구합니다.
킴스 미용실 전화: 532—7094

일요일 가게 Cashier 구함 (유경험자에 한함)
(Kingston × Midland) 전화 : 266—6355

구 혼

결혼상담실 (한국기원 내) 상담자 : 최규찬 김운서
653A BLOOR ST. W. TORONTO. (20부터 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오후 1시~10시

30세 재혼(남) 대졸(한국), 미국생활 1년
고생같이 하실분 아래주소로 연락바람.
P.O.BOX 3313 Gardena Calif. 90247 U.S.A.

착실한 26세부터 34세 사이의 신부감 구함
57 Willows Lane Pickering, Ont. (Mr. Kang)
꼭 관심있으신분은 서신 연락바람.
(비 영주권자라도 관계없음)

매매및 양도

MITA COPIER 500D (Very Good Codition)
사무실용으로 적합.
전화 : 533—2364 Mrs. 김

성능좋고 속도빠른 사진 식자기
(SAKEN SPICA — K)를 급매합니다.
문의처 : 한국일보사
전화 : 533—2364 Mrs. 김

토론토 북쪽 새로지은 Mall안에 있는 Fish & Chips Restaurant 팝니다. (Private Sale)
장래성이 대단히 좋음.
전화: 886—3375 6:00p.m.~9:00p.m. (Peter)

House for Sale (Christie & Bloor 지역)
Subway근처, 6년된 새집, 12 Room, 3 Bathrooms
지하실 구밈, $119,990 전화 : 534—5985

House for Sale (Private)
3 Bedroom Mortgage($75,000) 13% until 84년
Mortgage 좋은 Side Split Bungalow
가정사정상 급히 팝니다.
Markham × Lawrence
전화 : 439—1433(R) 463—7423(B)

성업중인 쥬니어 데파트먼트 스토아 급매
Open Hour : 월—토 (9:00a.m—9:00p.m) 꼭 관심있는분의 연락바람. 전화 : 1—576—7021, 1—576—9899(밤9시이후)

---

3 Bed Room Town Home 매매
Air Conditioning, 실내 Poor장, Sauna,
Ensuite Laundry 구비되어 있음.
Mortgage : 11¾%. 가격 : $62,900
(영×스틸 북쪽)
전화 : 881—9232 5시반 이후 (Mr. Kim)

공장지대 Office Building 안에 있는 경쟁없는
Donuts Shop, 도너스 만드는 시설이 완비되어 있음.
주매상: $3,500~$4,000
Open: 오전 6:00~오후 6:00
아스킹: $150,000
연락처: 665—0790 Mrs. Lee

Yonge St. 에 있는 꽃가게 급매
위치: 리치몬드·힐 지역
넓이: 4000 Sq. F.
주인이 이주관계로 적당한 가격에 급매코져 함.
꼭 관심있으신분 영어로 문의바람.
전화: 773—5530 Mr. Grabner.

Full Liquor License가 있는
40석 Family Restaurant 급매
전망이 좋고 이윤이 높음.
꼭 뜻있는 분은 1166 Morningside Ave. at Sheppard로 오셔서 Mrs. Kim을 찾으세요.

Variety & Hardware Store 급매
주매상: $9,000 아스킹: $100,000 + 스탁
리스 4년 + 옵션 5년
361 Carrville Rd. Thornhill, Ont.
(Hill Crescent Shopping Mall 옆)

Restaurant For Sale (Tavern)
동쪽끝에 좋은 환경에 위치한 식당 급매.
Good Lease(20 Years), Good Terms. 가격 : $350,000. 좌석 : 300
영업시간 : 7:00 a.m~1:00 a.m (Mon.~Fri.)
9:00 a.m~10:00 p.m (Sat.~Sun.)
자세한 내용은 오후 5시이후에 연락바람.
전화 : 284—0304 (Alex)

Variey Store 매매
(꼭 관심 있으신분은 내방 바람)
영업시간 :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일요일은 쉼)
조그마한 규모로서 혼자서 경영가능
1946 제랄드×우드바인코너
(J & M Discount Store)

과일 · 꽃가게 급매
영업시간: 오전 9시~오후 8시(주6일영업,일요일은 쉼)
주매상: $6,000 개런티 리스: 4년 + 5년
Rent: $1,043/mon. 넓이: 2,385 Sq.ft.
아스킹: $40,000 + 스탁
437 Carlaw Ave.(Riverdale Plaza) At Gerrard.

피아노 급매.
Chickering Piano(Walnut Wood)
3년된것이나 거의 새것임. Eaton에서 새것 $4,500나감.
가격 : $2,500
전화 : 463—7423 Mrs. Kim 439—1433(R)

세탁소 장비 일절 급매
아스킹 : $65,000. 자세한 문의는 오전8시~오후7시 사이에 영어로 문의바람. 전화 : 255—5751 (Willian)

낚시용 Boat 매매
거의 새것임. (16 Feet Long)
전화 : 270—1981 (Mrs. Kim)

성업중인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3,000 렌트: $300(Mon.) 리스: 5년
2988 Lakeshore Blvd. W.

---

2 Bed Room 달린 Grocery Store 매매
주매상 : $3,000~3,500
전화 : 694—1912

Kingston Rd.와 Victoria Park Corner에
위치한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전화: 698—0844 언제든지 연락요망.

좋은 위치의 빌딩과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로타리오머신과 딴 여러종류의 복권등 있음
전화 : 537—6296 Tom

이훈모 부동산
1) Coffee Shop in Office Building, 렌트: 약 $1200/mon.
주매상: $5000, 주5일영업, 아스킹: $16만
2) Donuts Shop, 현재 주매상: $8,000 리스: 20년
렌트: $3500(옆에 달린 Office포함), 아스킹: $325,000
다운페이: $15만 요구.
3) Fish & Chips in Mall
주매상: $4,000, 아스킹: $130,000
다운페이: $70,000, 주6일영업. 월~금: 10:00a.m.~7:00p.m.
토: 11:00a.m.~5:00p.m.
전화 : 225—1204

코너에 있는 그로서리와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5,000, 아스킹: $49,000(No Agents)
73 Coxwell Ave. (4시 이후 방문 바람)

50mm 스피커 달린
Sound—Projector
전화 : 368—2819 Mr. 왕

Becker Milk Store Franchise
3731 Lawrence Ave. E.
꼭 관심 있으신분 내방바람. 전화: 431—3921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19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399 etc.
937 QUEEN ST. W.
: 364—0984 REMA FURNITURE

하우스 렌트

사무실 세놓읍니다.(다운타운 소재)
월: $220, Own Sign available. (any size)
전화 : 444—1322, 365—1489

클링톤하우스 693 Bloor St. W.
일,주,월, 일정한 기간에 상관없이 Rent하실분.
Christie Subway에서 100m거리 아리랑식당앞.
꼭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3개의 방이있는 사무실 렌트 합니다.
(Professional Suit) 회계 또는 변호사사무실로 적합.
815 Bloor St. W. 2nd Fl.로 직접 내방 원합니다.

Bloor한인상가 중심부에 위치한 가게 Lease함.
선물센타나 금·은방에 알맞음.
전화 : 481—3677 (Frank)

한국일보 광고문의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가 구 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석민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화 랑

KIM'S ART GALLERY
각종 유화, 동양화 도매, 각종 Picture Frame
1286 Weston Rd. 전화 : 243- 0233

도 서 판 매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 용

ANNIE'S BEAUTY CARE CENTER
Skin Care, Ear Piercing, Fashion Make up.
각종 미용상담에 관해 전화문의도 받읍니다.
6093 Yonge St.(영 × 휜치)
전화 : 223—7884 Mrs. Lee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p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243—8026(R)

SALON YOUNG
(블루어×로얄욕)
남·녀 컷 & 파마전문
3074 Bloor St. W. 전화 : 231—4285

레이몬드미용실 (수잔: 한국인)
◉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백 화 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사무용구및 계산기

SKY WAY Business Machines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전화 : 675—1295 김 인환

사 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
COMMERCIAL · ART PHOTOS · WEDDINGS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3시30분~오후9시30분

Peter's Photography.(미시사가지역)
광고, 결혼식사진 전문. 전화: 270—2709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MISTER O FOR MEN
전화 : 964—2606, 869—0589, 275—2187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스 포 츠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 745—1632(R) Mr. 마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 수 웅

*** 한국일보 안내광고 ***

캐나다 외환은행

불루어지점 개점안내

그동안 교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착실한 발전을 거듭하여온 저희 캐나다한국외환은행은 한국인 타운인 불루어 STREET에 지점설치 준비를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개점하게 되었읍니다.

이제 저희 은행은 본점과 불루어지점 양 장소에서 여러분을 더욱 성심껏 모시게 되었아오니 배전의 애용이 있으시기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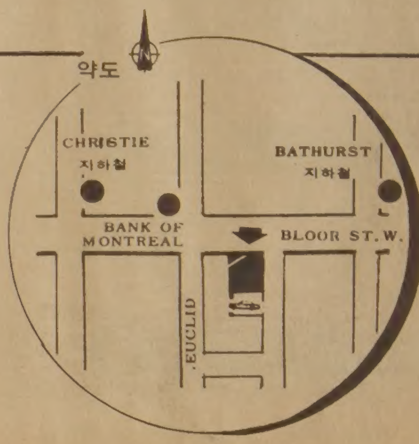
※불루어지점에서는 토요일에도 문을열어 여러분을 모십니다

캐나다한국외환은행장 최승낙

불루어지점장 김남수

영업개시일시 :1982.5.31(09 : 00)
개　점　식 : 1982.6.8 (11 : 30)
개점RECEPTION : 1982.6.8.(18 : 00~20 : 00)

불루어지점주소 : 627 BlOOR ST.WEST
TOR. ONT. M6G 1K8
533—8593



축 개 점

캐나다 외환은행

불루어 지점

폐사와

폐사의 고객들을 위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봉사해줄

캐나다한국외환은행 불루어지점의 개점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주식회사 신의상사

SINCERE TRADING CO.LTD.

116 TYCOS DR. TOR. ONT. M6B 1V9　　789—7544, 7545, 7546, 7547

2ND CLASS MAIL NO. 5248